

제주 관련 표해록에 나타난 해양 인식

윤치부(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1. 머리말

사마천의 『사기(史記)』의 「봉선서(封禪書)」에는 “제나라 위왕과 선왕, 그리고 연나라 소왕이 사람을 보내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가보게 하였더니 바다 가운데에 봉래산·방장상·영주산 등 삼신산이 있었고, 신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속에서 선약을 캐오도록 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이미 먼저 그곳에 왔던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의 새나 짐승은 모두 흰색이며 금은으로 궁궐을 만들었고, 모두가 발해 가운데 있어, 실제 인간 세상과 먼 곳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 여기서 말하는 영주산은 오늘날까지 한라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져오고 있으며, 바다 가운데의 신선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바다는 제주 바다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일찍부터 중국 문헌에서도 제주 바다와 관련한 기록이 나타난다.

제주의 <삼성신화>에서는 땅에서 용출한 삼을나(三乙那)가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다가 벽랑국(碧浪國)에서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와 망아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세 공주와 결혼하여 일도·이도·삼도에서 각각 거처하며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가축을 기르니 달로 살림이 풍부해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세 공주는 일본국 왕의 명으로 사자를 따라 바다를 건너와 삼을나의 배필이 되고 있다.²⁾ 제주 바다가 농경문화와 목축문화가 도래하는 통로가 되면서 삼을나와 세 공주를 연결하고 있다.

제주의 무속신화 <칠성본풀이>에서는 칠성신에게 치성을 드려 태어난 딸이 부모가 벼슬길에 오르면서 잃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찾은 딸은 중의 자식을 임신한 채로 돌함에 갇혀 바다에 버려져 제주도에 표착한다. 이 딸은 뱀의 몸으로 변신하여 딸 일곱을 낳았는데, 이들이 곡신과 농경신(1녀), 관청수호신과 관운신(2녀), 형벌과 치병신(3녀), 과원수호신(4녀), 창고수호신(5녀), 수신(6녀), 농경신(7녀) 등이 된다.³⁾ 제주 바다가 표류의 바다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는 바다와 관련이 깊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제주 관련 표해록에서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제주 근해에서 표류한 자료를 검토하되, 『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

1) 司馬遷, 「書, 封禪書」, 『史記』卷二十八 威·宣·燕昭遣人乘舟入海, 有蓬萊·方丈·瀛洲三神山, 神人所集, 欲采仙藥, 蓋言先有至之者. 其鳥獸皆白, 金銀爲宮闕, 悉在渤海中, 去人不遠.(張華, 林東錫 譯註, 2011, 『박물지』, 동서문화사, 90.)

2) <삼성신화>에 대한 기록은 『瀛洲誌』(1450) 나 『高麗史地理志』(1451) 등을 비롯하여 徐居正 등의 『東國通鑑』(1485), 李荇 등의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李元鎮의 『耽羅志』(1653), 李衡祥의 『南宦博物』(1702), 韓致淵의 『海東繹史』(正祖), 金錫翼의 『耽羅紀年』(1918), 金斗奉의 『濟州島實記』(1932) 등에 나타난다.

3)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건』, 각, 356~358.

기록은 물론 개별 작품으로 존재하거나 문집 등에 작품화되어 있는 표해록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어 제주 관련 표해록에 나타난 바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몇 가지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2. 제주 관련 표해 자료 검토

지금까지 제주 사람들의 표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문헌으로서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이다. 고려시대 제주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에 표류했다가 귀환하고 있다. 1029년(현종 20) 정일(貞一) 등 21명이 동남쪽 먼 섬에 표착하여 장대하고 전신에 털이 난 사람들에게 7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몰래 7인이 일본 규수의 나가사키[長崎]에 이르렀다가 돌아오고 있다.⁴⁾ 1078년(문종 32)에는 9월에는 일본이 제주 표류민 고려(高麗) 등 18명을 돌려보내주고 있다.⁵⁾ 1088년(선종 5) 7월에는 송나라에서 제주 표류민 용협(用叶) 등 10명을 보내주고 있다.⁶⁾ 이들은 명주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예성강과 중국 절강성 영파를 연결하는 남선항로(南船航路)⁷⁾를 이용한 셈이다. 1097년(숙종 2) 6월에는 송나라에서 자신(子信) 등 3명을 돌려보내주고 있다. 제주 사람 20명이 나국(裸國)⁸⁾에 표류되었다가 대부분 피살되고 겨우 3명만이 송나라로 탈출했다가 돌아오고 있다.⁹⁾ 1099년(숙종 4) 7월에는 송나라가 배가 파선하여 표류해간 탐라 사람 조섬(趙暹) 등 6명을 돌

4) 『高麗史』 卷五 「顯宗 21年 9月」; 『高麗史節要』 卷之三 「顯宗 21年 9月」;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一 「耽羅條, 己巳 20年」; 張漢喆, 『漂海錄』 「12月 16日」 乙酉, 耽羅民貞一等, 還自日本. 初貞一等二十一人, 泛海漂風, 到東南極遠島, 島人長大, 遍體生毛, 言語殊異, 劫留七月. 貞一等七人, 竊小船, 東北至日本那沙府, 乃得生還.

5) 『高麗史』 卷九 「문종 32년 9월」; 『高麗史節要』 卷之五;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一 「耽羅條, 戊午 32年」 九月 癸酉朔, 日本國, 歸耽羅國飄風民, 高礪等十八人.

6) 『高麗史』 卷十 「宣宗 5年 7月」; 『高麗史節要』 卷之六 「宣宗 5年 7月」;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一 「耽羅條, 戊辰 宣宗 5年」 秋七月, 宋明州, 歸我耽羅飄風人, 用叶等十人.

7) 고려 때 중국과 통하는 항로는 예성강에서 서해를 건너 산둥(山東)반도의 등주(登州: 山東省 蓬萊縣) 또는 밀주(密州: 山東省 諸城縣)에 이르는 북선항로가 있었고, 예성강에서 떠나 한반도 서해안의 자연도(紫燕島: 지금의 인천)·마도(馬島: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 海美 서쪽)·고군산(古群山)·죽도(竹島: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興德 서쪽)·흑산도(黑山島)를 거쳐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 명주(明州: 浙江省 寧波縣)에 이르는 남선항로(南線航路, 明州航路)가 있었다. 고려와 송(宋)과의 왕래는 초기에는 주로 북선항로를 이용하였으나, 요(遼: 契丹)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문종 때부터는 주로 남선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북선항로는 우리나라의 웅진반도와 중국의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항로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로로서는 가장 거리가 짧은 이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 때뿐만 아니라 신라 때에도 남양만을 떠나 바다를 건너 산둥반도 등주에 이르는 북선항로와 거의 같은 항로를 활발히 이용하였다.

8) 裸國은 옷을 입지 않고 사는 나라로 보이는데,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梁書』 「諸夷傳, 扶南國」 조항에 “부남국은 본래 나체로 살며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풀어헤치니, 의복제도가 없다(扶南國俗本裸體, 文身被髮, 不制衣裳.)”라고 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남국일 가능성이 있다. 부남국은 고대 중국에서 지금의 캄보디아를 이르던 말이다.

9) 『高麗史』 卷十一 「肅宗 2年 6月」; 『高麗史節要』 卷之六 肅宗 2年 6月;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一 「耽羅條, 肅宗 2年」 宋歸我漂風人子信等三人. 初, 耽羅民二十人乘舟, 漂入裸國, 皆被殺, 唯此三人得脫, 投于宋, 至是乃還.

려보냈다.¹⁰⁾ 1113년(예종 8) 6월에는 진도 사람 한백(漢白) 등 8명이 장사하러 제주도에 오다가 풍랑을 만나 송나라 명주에 표착하니 명주 태수가 송나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비단 20필과 쌀 2석을 주어 돌려보냈다.¹¹⁾ 1379년(우왕 5) 6월에는 명나라 황제가 그곳으로 표류해간 탐라사람 홍인룡(洪仁隆) 등 13명을 돌려보냈다.¹²⁾

조선시대에 이르면 표류인의 기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탐라지』나 『제주계록』,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김석익의 『탐라기년』 등에 두루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한철의 『표해록』처럼 표류자 자신이 직접 쓴 표해록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1456년(세조 2) 1월 25일 나주에 사는 선군(船軍) 양성(梁成)과 금산에 사는 사노비 고석수(高石壽) 등 10명이 제주에서 배를 출발하여 본토로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2월 초2일에 유구국의 북쪽 방면 구미도(仇彌島)에 표착하였다. 그 중에 8명은 일찍이 이미 돌아왔고 나머지 양성과 고석수는 1461년(세조 7) 6월 8일에야 유구국 사신 승려 덕원(德源)이 데리고 왔기에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있다. 이 표류기는 『세조실록』에 기록되었다.¹³⁾

1479년(성종 10) 5월 16일 유구국의 사신이 상관인(上官人) 신시라(新時羅)와 부관인(副官人)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 압물(押物) 요시라(要時羅)·야이라(也而羅), 선주(船主) 피고구라(皮古仇羅) 및 반종인(伴從人)·격인(格人) 등 합해서 2백 19명과 제주 표류인 김비의(金非衣)·강무(姜茂)·이정(李正) 등이 3척의 배에 나누어 5월 3일 염포에 도착한 내용과 표류자들의 표류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표류기는 『성종실록』에 기록되었다.¹⁴⁾

10) 『高麗史』 卷十一 「肅宗 4年 7月」; 『高麗史節要』 卷之六 肅宗 4年 7月;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一 「耽羅條, 肅宗 4年」 宋歸我毛羅失船人, 趙暹等六人.

11) 『高麗史』 卷十三 「睿宗 8年 6月」; 『高麗史節要』 卷之八 「睿宗 8年 6月」; 『東國通鑑』 卷二十 「睿宗 8年 6月」 珍島縣民漢白等八人因賣買, 往毛羅島, 被風漂到宋明州. 奉聖旨, 各賜絹二十四匹米二石, 發還.

12) 『高麗史』 卷一百三十四 「禔王 5年 6月」;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一 「耽羅條, 禔王 5年 6月」 帝遣, 還耽羅飄風人洪仁隆等十三人.

13) 『世祖實錄』 卷第二十四 「世祖 7年 6月 8日」 羅州住船軍梁成, 錦山住私奴高石壽等十人丙子正月自濟州行船, 值颶風漂到琉球國, 其中八人曾已還來, 今者琉球國使僧德源帶梁成·高石壽以來, 請令禮賓寺供饋. ; 『世祖實錄』 卷第二十四 「世祖 8年 2月 16日」 初, 丙子年正月二十五日船軍梁成等濟州發船逢風, 二月初二日漂到琉球國北面仇彌島. 島周回可二息, 島內有小石城, 島主獨居之, 村落皆在城外. 島距其國, 順風二日程, 梁成等留島一月, 載貢船到國, 住水邊公館. 館距王都五里餘, 館傍土城有百餘家, 皆我國及中原人居之, 令每家輪日餉成等. 過一月歸王城, 王城凡三重, 外城有倉庫及廐, 中城侍衛軍二百餘居之, 內城有二三層閣. 大概如勤政殿, 其王擇吉日往來居之. 其閣覆以板, 板上以鐵沃之. 上層藏珍寶, 下層置酒食, 王居中層, 侍女百餘人. 其國地勢中央狹小, 或一二息, 南北廣闊不見其際, 大概如長鼓之形. 國無大川, 國都東北距五日程, 有大山, 山無雜獸, 只有猪耳. 島內置郡縣築石城, 有官守者一人, 道路相距, 或一息, 或二息, 或半息. 居民或稠或稀, 每里各有長, 公私家舍無大小, 其制皆如一字無回互, 覆以茅草. 其國常暖無霜雪, 冬寒如四月, 草木不彫落, 衣不綿絮, 喂馬常用青草, 夏日在正北. …… 一, 初到(彌抄槐島) [彌阿槐島], 本島人與隣近屈伊麻島, 日南浦島, 時麻子島, 于甘島五島人民互相往來飲酒, 每相往時, 必請肖得誠等厚慰之.

14) 『成宗實錄』 卷第四百 「成宗 10年 5月 16日」 宣慰使李則馳啓云: “今來琉球國使臣, 上官人新時羅, 副官人三未三甫羅, 押物要時羅·也而羅, 船主皮古仇羅及伴從人·格人等, 合二百十九人, 濟州漂流人金非乙介·姜茂·李正等, 分騎三船, 今五月初三日, 到鹽浦.” 上官人言: “俺本博多人, 去丁酉年十月, 與副官人, 因興販往適貴國, 漂流人到泊, 國王授書

1483년(성종 13) 봄에 정의현감 이섬(李暹)과 훈도(訓導) 김효반(金孝胖) 등 47명이 표

契, 使俺等押來, 戊戌七月二十八日, 發船出來. 本年九月, 大內殿, 與小二殿相戰, 大內殿戰勝取筑前州, 豐前州, 遣代官守之, 小二殿戰敗, 遁在肥前州等處.” 金非乙介·姜茂·李正言: ‘我等濟州人, 去丁酉年二月初一日, 受進上柑子, 與州人玄世守·李青密·金得山·梁成石伊·曹恠奉, 騎鼻居刀船, 到楸子島, 遭風西向漂流, 第七[日], 南向漂流, 第十一日, 金得山飢病死, 第十四日朝, 將泊一島船敗, 玄世守·梁成石伊·李青密·曹恠奉等溺死, 我等緣崖不死. 遇漁船二隻, 載歸水上幕, 炊粥饋之, 第六日, 率歸其家, 輪次饋餉. 島名稱允伊, 居人長大美鬚髯, 女立則髮至地, 男人坐則鬚至, 言語·衣服不類倭人. 我等, 書朝鮮國三字于草葉示之, 不解見. 留六朔, 島人十三名, 率我等騎小船, 向東行二日一夜, 泊所乃島. 留五朔, 島人五名, 率我等, 騎小船向東行一日, 泊悖突麻島. 留一朔, 島人五名, 率我等, 騎小船向東行, 泊勃乃伊島. 留一朔, 島人五名, 率我等, 騎小船, 向東行一日, 泊后伊是麻島. 留一朔, 島人十名, 率我等, 騎中船, 向東行一日一夜, 泊脫羅麻島. 留一朔, 島人八名, 率我等, 騎小船, 向東行一日, 泊伊羅波島, 上項各島居人, 言語·衣服, 與允伊島相似. 留一朔, 島人六名, 率我等騎小船, 向東行一日, 泊悖羅彌古島, 居人衣服同前島, 言語小異. 留一朔, 島人十名, 率我等騎中船, 向東行三日二夜, 到琉球國海邊, 第三日, 引至官府, 館待甚厚. 一日, 國王乘黃金飾大輦, 前後軍衛儀仗甚盛, 又十餘歲男子, 騎馬隨行, 兵衛亦盛. 來至官府, 我等拜哭道傍, 發哀乞之聲, 國王駐輦問之, 令人饋酒, 俄而還去. 日本通事解我國言者, 來在其處, 言曰: ‘國王薨逝, 女主治國, 乘輦者, 是女主也, 騎馬小兒, 即國王子也.’ 留三朔, 各給綿布二匹, 青布一匹, 都給錢一萬五千文, 胡椒一百五十斤, 糙米五百六十斤, 及魚肉·醬付. 今來博多倭人新時羅等, 出送, 四日四夜, 到薩摩州, 留一朔, 發船行二日二夜, 至冰骨, 陸行二日, 至博多. 聞大內殿, 與小二殿相戰, 小二殿戰敗遁去, 大內殿軍士, 散住諸家, 一日見江上懸人首四, 又一日梟首二, 問之則曰: ‘彼梟首者, 乃小二殿人也.’ 留五朔. 發船行一日, 至一岐島留三日, 至對馬島留二朔, 今年四月初九日, 發船, 今五月初三日, 到鹽浦.” ; 『成宗實錄』卷百五「成宗 10年 6月 10日」乙未·濟州漂流人金非衣·姜茂·李正等三人, 還自琉球國, 言所歷諸島風俗, 甚奇異. 上令弘文館, 書其言以啓. 其言曰: “俺等, 丁酉二月初一日, 與玄世修·金得山·李清敏·梁成突·曹貴奉, 陪受進上柑子, 同騎一船, 開洋向楸子島, 忽值東風大起, 西向漂流. 自初發至第六日, 海水澄碧, 自第七日至八日, 行一晝夜, 渾濁如泔, 第九日, 又遭西風, 向南漂流, 海水澄碧. 第十四日, 望一小島, 未及泊岸, 舵折船毀, 餘人皆溺死, 裝載盤纏, 亦皆湮失, 俺等三人, 騎坐一板. 漂蕩間, 適有漁舟二隻, 各有四人騎坐, 見我輩, 收載而去, 到島岸. 島名閩伊是鷹. 其俗, 謂島爲是鷹. 人家, 環島而居, 周回可二日程, 島人男女百餘名, 刈草結廬於海濱, 將俺等住止. 俺等自發濟州, 大風激浪過額, 水滿舟中, 舷不浸者數板. 金非衣·李正, 操瓠挹水去之, 姜茂執櫓, 餘皆眩暈而臥, 不能炊爨, 勺飲不入口者, 凡十四日, 至是島人, 將稻米粥及蒜末來饋. 自其夕, 始饋稻米飯及濁酒, 乾海魚, 魚名皆不知. 留七日, 移置人家, 輪次饋餉, 一里饋訖, 輒遞送次里. 一月後, 分置俺等於三里, 亦輪次饋餉, 凡饋酒食, 一日三時, 一島人容貌, 與我國同一. 其俗穿耳, 貫以青小珠, 垂二三寸許, 又貫珠繞項三四匝, 垂一尺許, 男女同, 老者否. ……俺等凡留三朔, 語通事請還本國. 通事達國王, 國王答曰: ‘日本人性惡, 不可保, 欲遣爾江南.’ 俺等前此問於通事, 知日本近, 江南遠, 故請往日本國. 適有日本 霸家臺人新伊四郎等, 以商販來到, 請于國王曰: ‘我國與朝鮮通好, 願率此人, 保護還歸.’ 國王許之, 且曰: ‘在途備加撫恤, 領回.’ 仍賜俺等錢一萬五千文, 胡椒一百五十斤, 青染布唐絁布各三匹, 又賜三朔糧米五百六十斤, 鹽醬·魚醢·莞席·漆木器·食案等物件. 八月初一日, 新伊四郎等百餘人, 將俺等, 同駕一大船, 行四晝夜, 至日本薩摩州. 登岸波濤甚惡, 僅得而濟海, 勢與濟州同. 金非衣, 自捕刺伊島, 患頭痛沈綿未瘳, 至琉球國轉謁, 國王知之, 賜南蠻國藥酒. 新伊四郎等見之, 又以艾灸之, 曲加救療, 在舟中大小便時, 四郎每使其從者扶執, 恐其墜落船頭也. 及到薩摩州, 病乃愈. 新伊四郎等, 將俺等, 投舊主人家住接, 饋酒飯. 自翌日, 四郎等, 以琉球國所贈糧饌, 供饋俺等日三時, 州太守, 再邀俺等及新伊四郎於其家, 饋酒飯及餅肴, 皆海魚. 其家板屋甚壯麗, 常在家行公事, 財產豐富, 有駿馬數匹, 持弓矢荷長劍者二十餘人, 常在門下. 留一朔, 至九月, 候南風, 新伊四郎等, 買別船, 將俺等, 同騎沿岸而行, 凡三晝夜, 至打家西浦, 登岸. 四郎騎馬, 率俺等, 由陸路金非衣病起, 氣力未充, 亦覓馬使騎, 餘二人徒步, 行二日, 山谷甚險. 至霸家臺, 副官人左未時等, 押盤纏, 由海路已先到矣. 人家稠密, 如我國都城, 中有市, 亦如我國. 四郎等, 率俺等, 投其家, 饋酒飯餼饌甚豐, 上官、副官二人, 輪次供饋日三時. 大內殿所送主將, 再邀俺等及四郎, 饋酒餞, 所居瓦屋甚壯麗, 庭下侍立者三十餘人, 皆佩刀, 門外軍士屯廬者, 不知其數. 俺等, 見主將, 往攻小二殿, 擁兵而出, 軍士持槍·劍·小旗者, 三四萬人. 凡四日, 戰勝而還, 斬六級, 梟首於竿, 或有人柱其齒, 以驗其人之貴賤, 蓋有爵者, 染齒故也. 新伊四郎等, 以兵亂未息, 恐有逃竄者, 潛居海島, 出而剽掠. 以故, 留六朔, 待兵亂平定, 至今年二月, 將俺

류하여 해상에서 밤낮 열흘을 떠다니다가 양주(楊州)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굶어죽은 사람이 14명이었고, 이섬과 김효반 등 33명이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천추사(千秋使) 박건(朴健)이 데리고 돌아온다.¹⁵⁾ 이에 따라 홍문관 직제학 김종직(金宗直)이 이섬의 행록을 따라 표류기를 적어 아뢰고 있다. 이 표류기는 『성종실록』에 수록되었다.¹⁶⁾

1487년(성종 18) 1월 최부(崔溥)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왔으나 부친상으로 인해 일행 42명과 함께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중국 절강성 영파부에 표착하고, 반년 만에 한양에 돌아와 성종의 명령을 받고 『금남표해록』을 찬술하여 바친다. 최부의 표류 기록은 『성종실록』·『패관잡기』·『해동잡록』·『소문쇄록』 등에도 그 내용이 전해진다.¹⁷⁾

等, 登舟行十五里許, 至小島, 名軾駕. 留泊經夜, 翌日早朝, 開洋, 初昏至一岐島登岸, 人家甚衆. 四郎等, 將俺等投宿主人家, 用所齎糧饌, 供饋俺等. 留三日, 又開洋, 行一晝及暮, 至對馬島草那浦登岸. 四郎等, 將俺等投其舊主人家, 其主乃四郎叔父, 用所齎糧饌供饋, 主人亦饋酒. 其地磽瘠無田, 民皆艱食, 非如所經諸島. 以島主留難行狀, 風亦不便, 故留連二朔, 至四月不記日, 候東風, 沿岸而行, 至沙浦投泊. 留二日風順, 又沿岸而行, 泊都伊沙只浦, 留三日, 候東風, 早朝開洋, 行一晝及暮, 到泊鹽浦. 蔚山郡守, 見俺等, 着甘套, 各給笠子, 布一匹, 俺等製衣穿着, 上來. 右閩伊島以下, 凡物產, 俺等所見, 止此.”

15) 『成宗實錄』卷第一百五十七「成宗 14年 8月 14日」去春漂流旌義縣監李暹與訓導金孝胖等四十七人, 浮海上十晝夜, 到中原楊州地面, 餓死者十四人, 暹及孝胖等三十三人, 到北京, 朝廷令臣帶還.

16) 『成宗實錄』卷第一百五十七「成宗 14年 8月 22日」暹等初泊長沙鎮, 海邊有千戶桑鎧者, 領卒押暹等, 反接而行. 初宿長沙鎮, 巡檢官聶摠謂: “暹爲犯邊到此, 悉問本末, 暹以實書對, 約二更, 將卒著甲, 鳴鼓而進, 其意欲殺之也, 賴巡檢高聲却之得免. 行二日, 到掘港指揮所, 桑鎧等持供狀, 示暹曰: “成化十九年三月日, 供狀人李暹, 年係成化十九年三月初九日, 乘雙桅大船, 弓箭腰刀, 侵往上國境界, 是供的實.” 暹扣頭書進曰: “暹以朝鮮國旌義縣監, 遞任還京, 海中遭風, 得至上國, 萬萬天幸, 安有侵往境界乎? 非徒口不忍言耳, 不忍聞. 暹雖死白刃, 不可誣供.” 吏卒瞋目叱之, 執衣領, 強之. 暹扣頭俯伏, 終不署名. 摠兵官郭銑, 自蘇州到掘港, 書以問暹曰: “毋隱爾係, 自罹典刑, 明的寫.” 暹書答曰: “暹以朝鮮旌義縣監, 遞任還京, 遭海風漂流, 二十日夜, 幸至上國境土, 至今連命, 安敢有隱? 請陳朝鮮國可信之事. 成化十五年閏十月, 我國承上國之詔, 北伐女真, 暹亦預軍官, 十二月深入賊境, 斬級而還, 獻俘于上國. 十六年庚子, 十七年辛丑, 天使連到本國, 本國請世子誥命, 使臣亦赴上國.” 摠兵官書示曰: “爾邦敬奉朝廷, 備盡臣職, 待爾優禮, 若是他國之人, 定殺戮也.” 令人解暹等項鎖手縛, 暹等再拜, 摠兵官亦答拜. 又行二日, 到楊州, 指揮僉事劉胤等, 書以問暹曰: “汝主以何事爲政, 何物養民? 爲官者, 行何事? 朝士服工商服儒者冠服僧人道士之服, 明的寫.” 暹書啓曰: “我殿下以仁義爲政, 以農桑養民. 爲官者, 省刑罰, 遵上法, 薄賦斂, 以厚民生, 事君以忠, 事親以孝, 事兄長以敬, 接朋友以信. 朝服工商之服制, 同上國, 儒者冠服僧人之服, 亦不異上國, 但道士本國無有矣.” 又書問曰: “爾國文武卓異幾人, 如爾之輩, 幾人” 暹書答曰: “文、武卓異, 見在朝廷者, 不下千人. 如暹之輩, 不可勝紀云云.” 舟發楊州, 有稱謝士元者, 同時發船, 求詩於暹, 暹書以與之曰: “江南勝地是楊州, 青雀黃龍戴書樓. 叩柁張帆浮碧水, 暮天涼月逐人流.” 士元次之曰: “天風吹送到中州, 快觀龍顏五鳳樓. 千載遠封箕子國, 至今人物重儒流.” 到淮陰縣, 有一人書問曰: “天順年間, 陳鑑到爾國, 與鄭麟趾、朴元亨唱和, 知否?” 暹書答曰: “作詩事然矣. 我武臣, 不記之.” 其人又書曰: “爾國賢王, 以其詩, 作皇華集, 然乎?” 暹問: “爾是何人?” 其人曰: “陳鑑, 我嶽父也, 已歿了.” 暹曰: “朴元亨我族叔也, 亦已歿了.” 其人嗟嘆而去. 六月初十日, 到北京, 兵部郎官名崔瀆語之曰: “聞李暹等, 路上作詩, 可將來書?” 送五六首. 初暹發船翌日, 風浪甚饒, 乃斫中桅去之, 櫓皆折盡, 水滿舟中, 舟人爭縊于蓬屋, 上同行旌義訓導金孝胖亦然. 暹曰: “若去水理舟, 則猶有生理, 否則必死. 爾等不解縊救船, 則吾且死矣”, 乃縊于蓬下, 暹妾順非, 亦抱二兒自經. 邑吏韓進跪請於暹曰: “舟中水非由底漏入, 乃自外盪入者也, 若盡人事, 則可救矣. 願官毋死.” 首解暹, 次孝胖, 次順非, 諸人亦皆解縊, 遂與同力去水, 水始盡, 以木爲櫓行舟, 舟乃定暹與衆謀曰: “嘗聞正西則中國, 南則海水無涯, 每行船, 常使日月, 在右手外, 則可達中國也.” 衆飢甚, 鑽木出火, 以海水作飯, 鹹苦不可食, 食者渴飲海水, 渴益甚. 發船第六日, 許生等六人久飢, 卒飽食遂死. 第九日, 姜山等七人死. 第十日, 夫繼義等四人死.

17) ① 『成宗實錄』卷第二百六十一「成宗 23年 1月 14日」上御宣政殿, 引見崔溥問漂流時事. 溥對曰: “臣於戊申正月

1501년(연산군 7)에는 예조에서 제주의 내섬시(內贍寺)의 종 장회이(張迴伊)가 일본에 표

在濟州，聞父喪，遑遽渡海，夜泊草蘭島，北風忽起，隨濤上下，漂至中國 寧波府界，遇船二艘。臣等渴甚，以手指口，船人解臣意，遺水二桶。夜二鼓，其船二十餘人，持槍刀突入臣船，刦奪衣糧，又奪釘櫓投海中，拿臣船放之大洋。凡五日浮海上，適遇東風，漂到牛頭外洋，忽見有六船，共圍臣船，一船問：‘爾從何方來?’臣答曰：‘我是朝鮮國人，奉王事巡海島，遇風漂來，不知是何國地界也。’曰：‘然則爾等可隨我行。’臣辭以飢渴太甚，欲做飯。其人等適遇雨，皆入船窓，臣等舍舟登岸，冒雨通過二嶺投一里社，男女聚觀，或以米漿茶酒饋者，其里人多帶劍擊錚鼓，叫號噪突，擁驅遞送，每里如是。行五十餘里，有官人許清者，來問曰：‘爾是何國人?何以到此乎?’臣曰：‘我乃朝鮮國人，遇風漂到。’清饋臣等酒飯，令軍吏疾驅。臣等過二嶺，有佛宇，日將暮，清欲留臣等宿，里人皆以爲不可。清謂臣曰：‘汝若文士，可製詩以示之?’臣即書絕句以示，亦不許宿。又驅過一大嶺，夜二更至一川上，困莫能行，從者亦皆顛仆欲死，清執臣手以起，臣足繭，寸步不能致。復有一官人，領兵而至，軍威甚盛，驅臣等可三四里，有城。城中有寺曰安性，止臣等宿。臣問官人則曰：‘桃渚所千戶也。’聞倭人犯境，領兵而來，因許清之報，往驅爾輩而來，然未知真偽，明當到桃渚所訊問之矣。翌日，驅臣等行二十餘里，至一城許宿焉。有一人謂臣曰：‘爾初到泊處，是轄獅子寨之地，守寨官誣汝爲倭，欲獻馘圖功，故詐報倭船十四隻犯邊，將領兵捕斬，爾輩舍舟投入里中，故不得逞其謀。今把總官將訊爾輩，其知之。’辭有錯誤，事在不測，俄而千戶等七八員鞠臣曰：‘爾倭船十四艘犯邊，今只有一船，其餘十三艘在何地?’臣答曰：‘我朝鮮人也，與倭語音有異，衣服殊制，以此可辨。’又問：‘倭之善爲盜者，往往有爲朝鮮人服者，安知爾之非倭乎?’臣出示印信馬牌，其馬牌有中朝年號，故始信之。臣自此乘輜行，過十日餘程，始乘船，遂至帝都。帝賜衣一襲，並給衣袴。還到廣寧，大人贈衣一襲曰：‘爲殿下與之。’上又問民居城郭，男女衣服。溥曰：‘大江以南，蘇杭之間，巨家大屋，連牆櫺比；大江以北至帝都，人烟不甚繁盛，間有草廬，官府之城，亦皆高築，城門之樓，或有二層三層者。門外皆有擁城，擁城之外，又有粉牆几三重，男女衣服，江南人皆穿寬大黑襦袴，女皆左衽。寧波府以南，婦人首飾圓而長；寧波府以北，圓而銳。’命賜溥襦衣及靴曰：‘溥跋涉死地，亦能華國，故賜之。’

② 魚叔權, 『稗官雜記』二, 『大東野乘』卷之四 成化丁未, 校理崔溥以濟州敬差官, 奔父喪而來, 遭風漂海, 泊于台州, 備倭指揮等官轉送杭州。差官伴送到京, 禮部奏准解送。其後濟州之民, 漂到寧波府, 轉解完聚者, 至六七起, 本國輒遣使謝恩。嘉靖丁未, 余隨奏聞使赴燕, 有濟州人金萬賢等六十四人, 到館, 蓋亦漂海到寧波府者也, 其中遭風再到者五六人, 伴來指揮楊受曰: ‘自杭州抵京師, 水行一萬餘里, 沿途驛站, 多是彫殘, 余以微官帶六十四人, 船隻口糧, 不能齊一, 或留一二日, 金萬賢等羣聚奮杖, 辱打驛官, 驛中管事之人, 恐懼逃竄。余雖勸止, 終不聽許, 首尾兩箇月餘, 到處皆然, 不意禮義之邦之民, 生梗至此也。’初聞楊指揮之言, 未之皆信, 及至回程觀其沿路所爲, 果如楊言。夫濟州在極海之南, 未聞漂海生還, 若近世之數也。爲牧使者, 容易給引, 其乘船者幸其漂到中國, 不候順風, 此所以漂海之多於古也。然杭州一帶, 既受其弊, 安知邊將不指爲賊倭而斬馘之。又安知驅而逐之, 任其從海道復還乎。金萬賢等曰: ‘若有三五斗之米, 數甕之水, 雖值颶風, 不數日便達于寧波府, 何患之有, 漂海之弊, 將不止。’(민족문화추진회, 1985, 『패관잡기』4, 『국역 대동야승』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751~752.)

③ 權鼈, 『海東雜錄』一, 『大東野乘』卷之八 漂海泊于浙江地方, 有人在湖岸, 運水車以灌水田, 用力少而上水多, 可爲當旱農稼之助。語于千戶溥榮, 願學其制, 榮畧言機形之制, 溥曰: ‘我所見轉之以足, 此則運之以手何也?’榮曰: ‘爾所見必是踏車, 不若此制最便, 止用一人, 可以運之, 松木輕不可造也, 其機通上下用杉木, 其腸骨用榆木, 其板用樟木, 其車腸用竹片, 約之前後, 四柱腰大, 中柱若少, 其車輪腹板長短廣狹如之, 如不得杉榆, 須用木理堅韌者, 方可。’江以南人人死, 巨家大族或立廟旌門, 常人則畧用棺不埋, 委之於水旁, 至於城邊白骨成堆。江以北雖白髮, 皆垂耳環。還到北京, 寓玉河館, 琉球國人陳善, 將餅饌來饋, 感其恩, 即減糧以與之, 善揮手却之, 乃曰: ‘我國王二十年前, 差我父送貴國, 大爲人人見愛, 常想恩情, 今又得與公相見, 得非幸乎?’時琉球國使正議大夫程鵬等, 以進貢來寓後館, 善其從者也。還至凌河驛, 凌河東岸六七里間, 有白沙場, 沙窩鋪其中, 白沙隨風簸揚, 填塞鋪城, 城之不沒於沙, 僅一二尺。玉河館, 一夕有一人驅群羊過門去, 其中二羊毛長垂地。還到山海關, 關內十里置烟臺, 以備烽燧, 過關後, 間五里置小墩, 立標以記里。奉使濟州將還, 以其舟甚大無載物, 故輸若干石塊于舟中, 使不搖動, 及漂在大洋中, 以索纏石爲假碇, 本錄濟州之海, 色深青, 性暴急, 雖少風, 濤上駕濤, 激洑濤潤, 無甚於此, 黑山島之西, 亦猶然。濟州在大海中, 波濤凶暴, 人多漂沒, 故閭閻間, 女三倍於男, 爲父母者, 生女則必曰孝我, 生男則皆曰非我兒也, 鯨鯢之食也。漂入大洋中也, 舟中人皆曰: ‘嘗聞海龍甚貧, 請投行李有物以禳之。’爭檢衣服錢糧等物, 投諸海。大洋中, 怒濤如山, 高若出

류하고 격은 일을 보고하고 있다. 장희이가 1499년(연산군 5) 정월에 표류해서 일본 해안에 표착하였는데, 이라다라(伊羅多羅)를 따라 머도(旆島)에 도착한 후 도주인 아라다라의 아버지 평순치(平順治)의 환대를 받는다. 1년이 지나 아라다라로 하여금 장희이의 귀환에 동행하게 하여 1500년(연산군) 7월 30일에 제포에 도착하고 있다. 이 표류기는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었다.¹⁸⁾

青天, 下若入深淵, 轟衝擊躍, 聲裂天地, 忽遇大風雨, 掀天鼓海, 帆席盡破, 舟以二檣高大, 尤易傾撓, 勢將覆壓, 命舟人操斧去之, 得免沈沒, 至以衣漬雨汁, 咋以沃焦. 海中水色, 或青白, 或赤黑, 隨處各異, 自白還青以後, 風力雖勁, 濤不甚高. 十二日而泊于一巨島, 有二船來到, 舟中人皆穿黑襦袴, 著竹葉笠樓皮蓑, 喧呼應噪, 渾是漢語, 乃是浙江寧波府地方也. 天晴之日, 登漢望山絕頂, 遙望西北絕域, 則海外若有白沙汀一帶者, 以今觀之, 非白沙, 乃白海也, 大洋洪濤間有物, 不知其大, 其見於水上者, 如長屋廊, 漬沫射天, 波翻浪駭, 梢工相戒曰, 彼乃鯨也, 大則吞航, 小則覆舟, 過淮安府, 有龜山臨淮河, 人言此山足有神物, 狀如獼猴, 縮鼻高額, 青軀白首, 目光如電, 諺傳大禹治水時, 以大索鎖此物, 命住于此, 俾淮水安流, 今人有圖此物之形者, 以免風濤之患. 泊于寧波府, 行到蘇州, 泊舟姑蘇城下, 乘月過閶門外, 有通波亭, 舊名高麗亭, 宋元豐間所築, 以待高麗朝使者. 在大洋第九日, 有海鷗群飛而過, 舟人喜曰, 嘗聞水鳥晝飛海上, 夜宿島渚, 今見此鳥, 洲渚必不遠也, 十二日得泊于寧波府. 泊于台州, 乃古東甌之地, 風氣溫暖, 恒雨少日, 實炎荒瘴癘之方, 當正月而氣候與三四月同, 桃杏滿開, 牟麥欲穗, 竹芽方盛, 別一區天地. 江南俗, 婦女皆不出門庭, 或登朱樓捲珠簾以觀望, 無行役服役於外, 好冶容, 男女皆帶鏡奩, 市店皆建帘標. 舟至東昌府, 人家掛雕籠畜一鳥, 其形如鳩, 其喙赤而長, 其吻微黃而鉤, 其尾長八九寸, 眼黃背青, 頭與胸水墨色, 其性曉解人意, 其音清和圓轉, 人或言, 皆應之, 問曰: “此鳥能言, 無乃鸚鵡乎?” 此則隴西鳥, 我則東海人, 隴西海東, 相去數萬餘里, 我與此鳥, 客他鄉同也, 思故鄉同也, 形容憔悴亦同也, 觀此鳥, 彌增悲歎, 有人答曰, 此鳥長在籠中, 終死他鄉, 今足下好還貴國, 胡可謂之同也. 還到永平府, 閭閻間皆尚道佛, 不尚儒業, 商賈不業農, 衣服短穿, 男女同制, 飲食腥穢, 尊卑同器, 胡風未殄, 是可恨也. 濟州邈在大海中, 水路九百餘里, 波濤視諸海尤爲洶湧, 貢船商舶, 絡繹不絕, 漂沒沈溺, 十居五六, 不死於前, 必死於後, 故男最少. 浙江福建以南漕運, 或鑿運河, 或築堤置閘以通漕, 又決黃河注于淮, 通于白河, 大加修築, 水渴則置堰壩以防之, 水漲則置隄塘以捍之, 水淺則置閘以貯之, 水急則置洪以逆之, 水會則置嘴以分之, 壩閘洪嘴, 其制不同, 而皆築石爲之. 在水大洋中, 舟中無水渴甚, 或細嚼乾味, 掬其澆溺以飲之. 大洋中得一大島, 緣島岸繫舟, 舟人闌下, 覓飲溪流, 欲炊飯, 以爲飢餓之極, 五臟塗附, 若驟得食飽, 則必死, 乃煎粥而啜. 滄波雖若一海, 水性水色, 隨處有異, 海州之海色深青, 行過四晝夜, 愈白或還青還白, 又三晝夜, 赤而濁, 又一晝夜, 亦黑中全濁, 其色非一. 舡中無一器甘水, 盡搜行裝, 得黃柑五十餘枚, 視人唇焦口爛者, 均分食之, 令沃舌以救舟中一刻之渴. 漂至寧波府桃渚所, 有一官人, 來指所着喪笠曰: “此何帽?” 曰: “國俗廬墓三年, 不幸有遠行則, 不敢仰見天日, 以堅泣血之心, 所以有此深笠也.” 行到杭州, 杭爲東南一大都會, 連莊成帷, 市積金銀, 人擁錦繡, 酒帘歌樓, 咫尺相望.(민족문화추진회, 1985, 「해동잡록 1, 최부」, 『국역 대동야승』 V, 민족문화추진회, 13~14.)

④ 曹伸, 「謏聞瑣錄」, 『大東野乘』卷之三 成化丁未冬, 校理崔溥承差往濟州, 明年正月聞父喪, 閏月初三日發船, 遇風飄流, 在船四十三人, 飢渴待死, 十一日泊一島, 始得水而飲. 十三日到中國寧波府界下山之地, 遇賊盡被劫奪, 而截斷碇檣, 牽船放于海中而去, 又飄流東西十六日, 乃泊于台州臨海縣界牛頭外洋之地, 又爲漁船所圍, 指爲倭賊. 十七日冒雨暫躲, 出投于村舍, 里人相遞驅率, 或被亂打. 十八日至浦蓬里, 遇守塘頭寨千戶許清來邀, 詰問驅去. 跋行困頓, 辛苦萬狀至桃渚所. 二十一日松門備倭指揮劉澤來取供招, 使千戶霍勇護送. 二月初四日, 到紹興府, 備倭署都指揮及布政司官等, 引溥質問本國事, 以辨非倭. 初六日到杭州遣指揮楊旺押赴起行, 歷嘉興·蘇州·常州·楊子江·揚州·高郵州·淮安府·邳州·徐州·沛縣·濟寧州·東昌府·德州·滄州·靜海縣·天津·衛津縣·張家灣, 三月二十八日至北京, 四月發, 六月初四日入本國, 十四日到青坡驛, 命修漂流日記以入.(민족문화추진회, 1985, 「소문쇄록」,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720.)

- 18) 『燕山君日記』卷第四十「燕山 7年 1月 30日」己卯, 禮曹啓: “頃者平順治使送而羅多羅率來漂流人濟州居內瞻寺奴根迴伊云: ‘去己未正月, 漂流到日本海邊. 有倭人十一, 騎小船而來, 又倭船三十餘隻來圍. 有而羅多羅稱名倭人以吾所騎之船, 懸結其船之尾, 東行至一息許彌島邊, 有倭家三十餘戶. 率至其家, 留十日, 常饋酒飯. 十日之後, 東距一日

1534년(중종 29) 2월 20일 제주에서 김기손(金紀孫)과 만주(萬珠) 등 12명이 노비가 신역(身役)을 대신해서 바치는 공물을 싣고 떠나 추자도 근해에 닿았을 때 폭풍을 만나 표류되어 윤2월 1일에 중국 남경 회안위(淮安衛) 지방에 표착했다가 절강을 지나 통주강에 도착하여 사신 오준(吳竣)을 알현하고 다음날 북경에 도착했다가 귀환하고 있다. 이 표류기는 『증속실록』에 기록되었다.¹⁹⁾

1542년(중종 37) 제주 사람 박손(朴孫) 등 12명이 유구국에 표착하여 4년을 머무르다가 중국으로 보내져서 돌아오고 있다. 특히 박손 등은 복건성에서 본 수차(水車)를 보고 그 제도를 상세히 익혀가지고 돌아와서 장인들에게 가르쳐 제작하니 그 용도가 농작에 매우 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표류기는 『명종실록』과 어숙권의 『패관잡기』 등에 기록되었다.²⁰⁾

程山底，有烏叱浦里，卽而羅多羅所居。是夕到島主平順治之家，亦許留。造給綃襦衣二，布袂衣二，單衣三，裏衣二，經一年。平順治謂我曰：‘汝欲居此，則當娶妻，造家而居，若欲還本土，當出送。’答以思戀父母，欲還本土。平順治成書契，授其子而羅多羅，給路糧十碩。前年正月十二日出送，自其家東向一日程，到丐奇島留三日。其處倭戶二十，船隻十餘浮泊，皆釣魚船。又東向懸帆，二晝一夜而到化可大島，十七日留連。指西行船一日，到壹歧島留四日。又東向行船一日，到對馬島，島主不卽出送，留至六朔。前年七月受行狀，是月三十日到齊浦。其處風土，則島主平順治每出獵時，騎馬佩環刀與箭，腰間內外佩小刀，而弓子則令步行人齎持，盡會居處軍士，打驅獐鹿猪雉水獺等獸。獵得獐鹿，則剥皮而棄其肉，猪雉水獺等肉，則烹熟，終夜飲酒而散，明日亦如是。每飲酒時，招我饋之曰：‘酒肉汝當飽食。’水獺則海邊居倭等，以古道魚·烏賊魚·魴魚·都音魚·大口魚·青魚·魷魚·生鮑·海參·洪魚·石首魚·秀魚，隨節漁取，獻島主之家。耕水田以牛，稻種沈水發苗後，四月播種，立苗成長後，五月移秧，不除草，七月收穫，其穀草長二把。又其根立苗至熟，九月收穫；又其根立苗不熟，則人不食之，刈取之以養牛馬。田穀則五月之間，麩麥·豆太·粟稷一時落種，用牛反耕。立苗後二除草收穫，更不耕種。島主平順治家三十餘間，皆蓋瓦，以木板爲壁。其餘麾下人，則長行廊草家，各間入接，如本國市中左右行廊。男女婚姻，則女之父母以斑衣裹其女之頭，乘馬先行，父母奴婢隨之。夫家交婚之後，過夜行酒禮，翌日朝，父母奴婢還家。行路人，常佩環刀與小刀，若遇尊長，脫鞋過行。雖不曾相知者，若不脫鞋過行，則發怒追捕斬頭，又私相發怒相鬪者，以環刀相毆斬頭，島主雖知，專不檢察。”

19) 『中宗實錄』卷第七十八 「中宗 29年 11月 24日」濟州漂流人，萬珠等也：“二月二十日，自濟州載身貢發船，至楸子島，遭風漂流，閏二月初一日，止泊于南京地淮安衛地界。有漁船五隻適至，見吾輩不知爲何許人，搖船馳去。吾輩追往，以瓢汲海，爲俯飲之狀。其人知其索水，卽以炊飯水與之，向我言說。雖未能解聞，若問其汝爲何國人，俺等應曰：‘我是高麗人。’其人卽報里長，里長卽來視之，引船而往，報于上司。號爲官員，如我國萬戶者，步出視之，只率崔萬同一人，往告于淮安府。相其衣服之制，認是朝鮮人。其官員還至本處，盡率俺等十二人，往付淮安衛。當吾輩下船之日，觀者成羣，十里不絕。其間小僮，或有踐傷者。淮安衛中有六司，六司巡視俺等訖，留置于司倉，供饋三時不輟。一時每一人，用二升米，猪肉一斤，醬醋薑蒜皆在焉。在此觀者，亦日集滿庭。軍士把門而禁，則賂銀而開視者，亦有焉。七司官員，各有一人，皆着紗帽，段服胸襟，皆畫金龍。帶則淮安府用玉帶，六司皆着玳瑁帶。其下胥吏，着幘頭，又有着紗帽者。不知何如人也，有似衙前焉。軍士着無角幘頭，羅將着甘吐，有罪者，以大竹剖作四片，用一片而刑之。又以圓木，列柑于五指間，縛其兩頭，絞而鑽之，人之痛楚，莫甚於此。女則花冠盛粧，列坐于交倚，男則常着黑衣，備飯羞供饋而已。城中大伽藍，罔知其數，而皆爲巋塔。官府皆壯麗，階庭承步者，盡是輶也。市衢道路，亦皆鋪巋。名爲刑曹官員者，時時來見，檢其供事，護之甚勤。又不令守禁，任其出入，使之遊賞，無山川可觀，只有夫江橫前。六月十三日，刑曹官，將甘吐一事，單衣一件，裙一件，布帶一事，行膝與襪相連者一件，與之。十四日，官員一人，千戶一人，軍士八，領俺等泝江而往。傍有彩船，無數奇花好樹，雜植舟中。四面窓戶，粧金施彩，乘簾金色，眩亂左右。歌管爭鬧，簫螺竝吹。所掛大帆，長可二十餘把，廣可八把許。俺等所乘，乃中船也。七月二十六日午時，止泊通州江。卸船登岸，憩食于館。我國使臣吳準，已先到矣。俺等十三人，齊進謁見。吳使臣·蘇侍顏至，使臣行次，卽時發去。俺等留宿。翌日各乘驢，直入北京，去通州館約六十里。”

20) ① 『明宗實錄』卷第三 「明宗 1年 2月 1日」戊子朔/傳于政院曰：“見冬至使聞見事件，則本國朴孫等 濟州人，凡十

1679년(숙종 5) 10월 관노 우빈(友彬)이 관가의 무역 일로 배를 띄웠다가 사소도(蛇所島)를 지날 무렵 북풍을 만나 표류하여 일본의 취방도(翠芳島)에 표착하였다가 이듬해 장기도와 대마도를 거쳐 7월에 동래로 돌아와 10월에 제주로 돌아왔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¹⁾

二人. 漂到琉球國, 國王至誠款待, 又於闕庭饋享. 交隣厚意, 不可不謝, 但無路可通. 本國使臣, 若於中朝, 見琉球國使臣, 則宜以此致謝.” 朴孫見福建道水車, 詳習其制, 還本國, 教匠人造作, 其用甚利於農作. 注書尹潔, 因朴孫等之言, 記琉球國風俗, 其略曰: 其俗男無貴賤, 皆結髻於頭左角, 大如拳, 髮多則剃減之, 用帛裹繞. 或青、或黑、或紅, 其貴者用黃. 不着靴鞋, 騎步皆赤足. 衣制如我國縞徒之衫, 唯於朝衙, 着紗帽金銀玉帶, 一如上國制度. 女無貴賤, 不穿裙, 圍裳數重, 亦未嘗露其肌體, 結髻於頭後, 而無戴飾, 唯貴者插花簪於結處. 行常隱其面於衣領中, 但出兩目而已. 衣制亦如僧衫, 其地常暖不冽, 男女肌膚鮮潤, 女多異色, 不施脂粉. 且女有官職, 凡女政皆決於女官, 朝衙不於國王, 而獨於王妃也. 女官之行也, 騎不跨鞍, 踞于鞍上, 兩足一蹬, 如據胡床. 然馬首行辟與僕從, 皆用女人. 擇卿相子弟年少者, 多齎銀兩, 渡海入南京, 遊學兼習南北兩京語音, 力俟其學就, 遣船率還, 試其所學, 能者授之以職, 否者徵還銀兩. 以故子弟之入南京遊學者, 自知其學不就, 則不敢還也. 國俗寬厚正直, 無狡詐欺罔之習. 公私竝不用刑杖, 閭里不相詆詬, 不相鬪鬪. 有罪過有司記之, 至三犯然後放之絕島, 終身不得出. 爲市者列貨實於肆, 或以事出去不守, 而無或竊取. 爲農自正月種苗, 五月而穫, 六月而種, 十月而穫, 十月而後藝芋於其田, 歲終而採, 芋如我國所種, 味香厚, 雖不烹熟, 亦不刺喉. 田穀亦一年兩穫. 十一月如我國三月四月, 本無冰雪. 居人或衣段子, 或衣紗綾, 隨所備而用, 無貴賤等級. 人死則三年蒙白, 弔喪等事, 略如我國, 而初喪不廢食肉. 其葬也斷削巖, 作爲宮屋形, 鑿其內空曠, 以木板爲戶, 置柩於其中, 凡一家之死者, 皆入其中. 祭則開戶, 祭訖即鎖. 力不能者, 求得巖穴如屋者置柩焉, 不用埋瘞. 貨幣用銅錢, 錢一百, 當米二升. 其婚娶也, 夫家先輸錢婦家, 宴飲凡禮, 皆自婦家設之, 夫家一無所措. 期至, 夫盛衣服上馬, 諸族擁後而行. 用二銀轎, 盛以幣物, 植以花萼, 當馬首前導云. 且其俗盛事僧佛, 私居及官府, 皆列佛像. 山川奇峻, 土地肥厚, 有鹿獐無豺虎, 且無雉焉. 有木其葉如傘, 蓋甚柔韌, 婦人之貴者, 以其葉爲冠而行, 葉垂於腰, 欲人不見其面也. 且凡包裹, 皆用此葉, 農人耕耘者, 亦以此爲笠. 有草如芭蕉大者, 如棟柱, 刈之去外皮, 取內皮爲三等布, 以皮之, 內外而布之, 麤細異焉. 其最內者, 極爲細潤, 色潔如雪, 妍密無比. 女服之好者, 以此爲最云. 國王所御之殿, 高五層, 以板覆之, 王具紅錦衣, 戴平天冠, 與一僧對坐, 行望闕禮. 事大明, 故爲此禮云. 百官以職次, 分班拜於庭下, 立朴孫等於百官班後, 令一時拜曰: “爾國亦爲大明臣, 不可不拜.” 云.

② 魚叔權, 『稗官雜記』四, 『大東野乘』嘉靖壬寅, 濟州人朴孫等, 漂到琉球國. 留四年, 轉解中國, 因得回還. 柳大容採其語, 作琉球風土記. 略曰: “國都中有中山, 王宮構其上, 故稱琉球國中山王. 山頂平衍, 其樹多松杉. 每正月種水田, 四月收穫, 五月又種, 八月收穫. 日氣常暄暖, 冬月極寒之候, 如本國八月. 牛馬常食青草, 凡樹木舊葉未落, 新葉已生. 無霜雹冰雪, 人居皆用板爲樓, 不設炕房, 冬衣皆袂, 無襦襖之制, 夏製蕉布或苧布爲衣. 蕉布者蓋以苞蕉縷爲織者也. 男女之冠, 皆編椰葉爲之, 男冠如本國僧笠. 或以帕抹首, 或露髻而行. 女冠如本國圓筐子, 人不得見其面, 唯命婦戴之, 其餘用所著衣蔽面而行. 男有袴子, 女只以單裙圍之二重, 貴賤皆然, 男女皆椎髻, 男則於右, 女則於後. 唯貴者着草履, 餘皆跣足. 大抵男多長鬚, 女多艷色. 其俗無車轎之屬, 家不畜犬, 野無虎狼狐狸雉鷄鴟鵂, 味多海錯, 菜無水芹, 釀濁酒不用麴, 只嚼米和涎, 盛器經宿, 其甘如蜜. 凡交易皆用銅錢. 土產多金銀, 而拘於神忌不得行, 若產於日本者則許用. 不立學舍, 童稚就寺僧學番文, 其學經書者, 皆入學於福州. 每歲元日及八月十五日, 祭其先, 自正月初八日至十五日, 達夜燃燈, 男女游玩, 道路填塞. 三月三日土庶相聚宴飲, 五月五日, 造船象龍形, 選童男船各二十人, 插金銀綵花, 執棹爲戲. 七月十五日, 家家燃燈, 男則服女服, 女則服男服, 來往爲戲. 冬至日作豆粥以食. 又人死則無貴賤, 富者鑿石藏棺, 貧者藏於石穴, 並無碑碣之類.” 云矣. (민족문화추진회, 1985, 『패관잡기』4, 『국역 대동야승』I,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779.)

21) 鄭運經, 『耽羅聞見錄』己未十月, 官奴友彬, 以官貿易發船. 戌時過蛇所島, 遇北風. 波濤湧立, 須臾之間, 舵折檣倒. 船板憂憂生縛. 於是以前碇索代舵, 隨風所之. 翌日暮出東洋, 風勢雖殘歇. 而船中器械皆折傷, 故惟隨風東西, 泛泛在洋中. 至五六日, 漢孖見於西方, 如一點. 過五日, 不可復見. 六日遙見東方, 數島如螺髻. 翌日平明, 船已抵島入港口. ……五月十九日, 到長碇. 有官長點數我人, 接人一館. 所留此一月, 有唐船到泊. 倭人羣聚交易. 蓋爲商賈而來者也.

1687년(숙종 13) 9월 3일 제주진무(濟州鎭撫) 김대항(金大璜)과 해남 대둔사로 가서 그곳 승려에게 그를 배우려던 신촌에 사는 17세의 고상영(高尚英) 등 제주의 아전과 백성 24명이 진상하는 말 세 필을 싣고 화북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추자도 근해에서 풍랑을 만나 31일 만에 안남국 회안(會安) 지방에 표착한다. 1년 여 동안 생활하다가 안남 측의 협조하에 마련된 배편으로 1688년 8월 7일 회안을 떠나 중국 영파를 거쳐 12월 16일 대정현에 돌아온다. 이 표류사실은 『숙종실록』은 물론 정동유의 『주영편』,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이익태의 『지영록』 등에도 기록되었다.²²⁾

六月發船到對馬島，接待賜餽，自有節次。七月還到東萊。十月入濟州。家屬尙着衰服焉。(정운경, 정민 옮김, 2008, 『탐라문견록 :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38~239.)

22) ① 『肅宗實錄』卷第二十「肅宗 15年 2月 13日」濟州人金泰璜，於丁卯九月，領牧使李尙所進馬，行船至楸子島前，爲風所漂，三十一日方到安南國會安地，安南國王假公廨而待之，賜錢米以餬口，適遇浙江商船，以戊辰七月載歸本州。

② 鄭東愈，『晝永編』一 肅宗丁卯，本州吏民二十四人，來船到楸子島近洋，爲大風所漂流。凡行十二日，風始少息，而船十無甘水，惟啖生米，以療飢。如是，在洋中六日，又過東北風，行十七日，至一島。見聚船來，截四面，劍戟森列。蓋其島巡邏船也。乃以手示酌水渴飲之狀，其人解意，送一船，給以一瓶水。我船中三人在船邊者受，而盡飲之，即皆暈倒不省人事。其人又汲水送之，故餘人則煎作熱水，徐徐飲之，精神始清爽。於是，出紙筆書問：“何地方？”其人書答：“此地號安南國。爾等在何邦，緣何到此？”……十二月十三日，遇西南風，向我濟州而發船，行三日，而到大靜縣。(鄭東愈，南晚星 譯，1971, 『晝永編』(影印)(上), 乙酉文化社, 238~241.)

③ 鄭運經，『耽羅聞見錄』 丁卯九月初三日，朝天館新邨居民高尚英，年十七，將往海南大菴寺，學文于巨僧，乘進上船。夕時行近楸子島二里許，忽大風自西北起，雨如注下。船蕩漾不定，幾覆者數矣。急斫倒梶竿。於是船往如飛，須臾出大洋，雲垂如墨，波立如山。凡卜物盡棄洋中。不分晝夜，行十二日，風勢小殘。而船中甘水已盡，惟啖生穀療飢而已。忽有鳥狀如燕，來集船樑。以一撮米散置，則啄食之。人又近之而不避。一船之人，以爲天所遣護我輩生活，皆膜拜求生。於是撤船梁，立爲桅竿，掛臥席，整頓舵楫。其鳥在船凡三日，飛向東北而去。又東北風大作，船不得制，隨風所之。又行十七日，遙見雲霧中有島，渺如一拳。漸近而忽見宛然一大島，而水底石角巉嶮，不得泊船。躊躇之間，見一船自島後櫓來。船上約有七八人，聲音服色，頗詭異。駐船數十步地，以手加額，仔細望察，回船却走。於是人相議曰：“此必流球國也。若直說在濟州，則死不免矣。莫若以全羅道興德縣居民自稱，以求生也。”約才定，見二十五隻小船，如飛而來。四面截住，劍戟森列。一船之人，皆惶恟，欲走無路。語且不通。但以手爲酌水飲之之狀。彼人解其意，使小船，傳給一瓶水。我船中三人，在船頭盡飲之。皆如酒醉昏倒，不省人事。蓋饑腸飲水太多故也。餘人盡不得飲。又示欲飲之狀，即汲水以送。時金太黃，以進上色吏在船中，急止之曰：“前三人累日飢腸，飲冷水太多，故有此醉傷之患。若煎而小飲，則必不傷矣。”從之果如其言，而稍覺精神清爽。於是太黃以書問曰：“此地何邦，貴國何號耶？”授汲水人傳示，則亦以書答曰：“此地號爲安南國也。爾等在何方而緣何到此？”……戊辰八月初七日，舉帆向北，而行凡九日，到廣東省，留三日，沿海至福建省，留二十日。又沿海至永福，留月餘，又到浙江省，留若干日。到湖州府，留多日貿販。又至金華府寧波府，至普陀山，留七日。凡五閱月。再整船具，十二月十三日，遇西南風，向濟州發船，行三日，泊大靜縣硯川。(정운경, 정민 옮김, 앞의 책, 231~234.)

④ 李益泰，『金大璜漂海日錄』，『知瀛錄』(影印) 丁卯年八月之晦，濟州鎭撫金大璜，舵工李德仁等，從人及格軍并二十四人，同乘一船，載適任進上馬三四，候風于禾北鎭港口矣。至九月初三日，風勢似好，點檢人馬，開船出海，日已晚。纔到楸子島前洋，風變東北，挾雨大作，波濤接天，咫尺不辨。欲向北陸，則風逆難制。欲還濟州，則船漸西漂，俱不得自由。罔知攸爲之間，櫓傾舵折，覆沒之勢，決在呼吸。而惟舵工李德仁，終始勤力，結束草茭，繫連船尾，船載卜物，盡爲投海。而進上馬則，與人同死生之物，故更爲牢縛。隨風漂流，以待天命……大抵金大璜等，丁卯年九月初三日，出海漂三十一日，到安南國會安府地方，戊辰七月，逢閩船，同月二十八日，自會安港口開船，由廣西廣東福建浙江四城沿海，行四箇月，得至於寧波府界定海縣普陀山港口，自普陀山港口開船，沉海十日，到泊于西歸浦，時十二月十七日也，漂流十六朔，乃還故土。(李益泰，金益洙 譯，1997, 『知瀛錄』(影印), 濟州文化院, 161~176. ; 김봉옥·김지홍 뒤집,

1698년(숙종 24) 11월 29일 성 안에 사는 사람 강두추(姜斗樞)와 고수경(高守慶)이 진상선을 타고서 추자도를 지나다가 악풍을 만나 표류하여 일본의 옥구도(屋鳩島)에 표착하였다가 살마주·장기도·일기도·대마도를 거쳐 동래로 돌아오고 있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³⁾

1701년(숙종 27) 12월 26일 대정현 관리가 북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듬해 정월 초4일에 옥구도(屋鳩島)에 표착하였다가 산천포와 장기도로부터 대마도에 다다라 돌아왔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⁴⁾

1704년(숙종 30) 정월 초10일 관노 산해(山海)가 표류하여 일본의 양구도(梁九島)에 표착하였다가 장기도로부터 대마도를 거쳐 7월에 동래에 도착하였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⁵⁾

1720년(숙종 46) 11월 14일 대정현 백성 원구혁(元九赫)이 표류해서 축전주(筑前州) 신공포(神功浦)에 표착하였다가 장기도를 거쳐 3월 그믐에 부산으로 다시 건너왔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⁶⁾

1723년(경종 3) 4월 초8일 조천관에 사는 백성 이기득(李己得)이 배를 띄웠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일본의 오도(五島)에 표착하였다가 대마도를 거쳐 거제도(巨濟島)로 돌아왔다. 이 표류기

2001,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347~350.)

23) 鄭運經, 『耽羅聞見錄』 戊寅十一月十九日, 城內居民姜斗樞高守慶, 乘進上船, 過楸子島. 猝遇惡風漂流. 十二月初八日, 海中有石山如丁字, 立石壁層疊撐空, 其高到天. 無點土, 艸木不生, 船不可泊. 遂透東而行數日, 有一島如覆甌. 上有孤松如蓋. 四壁皆石, 高可千仞. 船于不可泊. 惟隨風向東. 行一日有大島當前. 至五更船抵岸. 遂汲水環坐, 至平明見, 不遠地多有漁船. 乃以赫蹠書曰: “我等朝鮮人也. 漂流到此, 幸望救濟人命.” 遂舉手呼之. 有髡首黑衣者一人, 趨至, 可知其倭也. 指書踰山而去, 須臾小船六七, 其來如飛. 近我船, 其中五人, 上我船, 授點卜物行裝. 因向天吹口氣, 爲風起狀, 欲而船回泊. 於是舉碇施櫓, 齊唱悼歌, 音簇瀏亮. 倭皆平生始聞之, 拍役夫背甚喜. 行泊一浦, 左右閭閻, 撲地橘柚離離. 有官倭來, 施揖分坐, 以文字酬酢. 其地方日本所屬屋鳩島也. ……居長碇四十餘日, 又發船過平湖一歧島, 到對馬島, 時值端陽, 家家門外豎彩旗轟檠戟, 其數之多少不齊. 問之則曰: “有一男子者, 旗轟檠戟皆一, 有數三子者, 數亦如之. 以祈其福壽.” 當日男女衣上皆畫彩花, 遊街市, 甚都洽. 始用雨傘, 無雨陽, 皆手擎不廢, 十六日發船, 抵東萊.(정운경, 정민 옮김, 앞의 책, 239~241.)

24) 鄭運經, 『耽羅聞見錄』 辛卯臘月念六日, 大靜官吏, 遇北風漂流. 一日波濤相搏, 崩壓魚鼈. 入舟人益大恐. 至明李正月初四日, 遙見, 一島上白雲如綿, 矗矗撐天. 已而船近島, 左右小船, 錯置如某布. 遂下陸, 黑衣人數百聚會, 書問曰: “爾等何國人乎?” 以朝鮮人答之, 又問曰: “向者南蠻人, 以詭計毒藥殺島人班飛中石等, 竊財貨而逃. 此後禁令至嚴, 爾等知否?” 曰: “他國人何能知之?” 又盤詰船人姓名及所持貨物甚祥. 又曰: “朝鮮與日本, 和親否?” 蓋懲南蠻事, 恐我人之有詐, 多端以問之也. 其地乃屋鳩島也. 自山川浦長崎島, 抵對馬還歸.(정운경, 정민 옮김, 앞의 책, 248~249.)

25) 鄭運經, 『耽羅聞見錄』 甲申正月初十日, 官奴山海漂流, 十二日. 抵一島下船, 依岸環坐, 隔林聞人語微微. 已而黑衣數百, 佩長短二刀, 一齊來會, 我人等恐慄. 皆攢手號哭之. 彼人書示曰: “此地是日本南界, 亦梁九島也. 前此朝鮮人之漂到, 俺等盡心救護, 好好還去. 且國法無人命殺害事, 勿怖勿怖.” ……一日見擔竹筐賣綿花者, 相交易而綿不稱, 錢不數. 門諸通事, 則曰: “有定價, 不相欺故耳.” 自長崎歷對馬, 七月抵東萊.(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48)

26) 鄭運經, 『耽羅聞見錄』 庚子十一月十四日, 大靜居民元九赫, 漂到日本筑前主神功浦. 倭人護行, 十六日抵長崎. 接人館所. 一日問通事曰: “日本隣接凡幾國?” 曰: “漂人何用之? 爲琉球國甚近, 昔者興兵討之. 人其界, 焚船傳檄曰: ‘日本地狹, 而生齒日蕃. 願借貴國容接焉.’ 琉球人相議曰: ‘彼焚船決死, 兵鋒不可當.’ 遂乞降, 至今和親云.” ……於是書‘日月照乾坤’五大字餘之, 大喜稱謝. 粘其書於壁, 設高卓單置一器餅中插青竹葉冬栢花, 至望日始撤之. 二月發長崎, 三月晦日還渡釜山.(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49~250.)

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⁷⁾

1724년(경종 4) 2월 14일 도근천(都近川)에 사는 백성 이진춘(李建春)이 추자도를 지나다가 서풍을 만나 동쪽 바다로 표류하여 9일 만에 대마도에 표착하였다가 동래를 통해 귀환하였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⁸⁾

1726년(영조 2) 2월 초9일 김일남(金日南)과 부차웅(夫次雄)이 물건을 팔려고 일행 9명과 함께 배를 탔다가 추자도 근해에서 동북풍이 크게 일어 표류하여 유구국에 표류하였다가 이듬해 북경을 거쳐 동지사 일행과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4월 18일에 제주로 돌아왔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²⁹⁾

1729년(영조 5) 8월 18일 신촌 사람 윤도성(尹道成)은 물건을 팔러 일행 30명과 함께 배를 띄워 육지로 향했다가 화탈도를 지나자 비바람이 크게 일어 표류하여 22일 만에 대만에 표착한다. 북경을 거쳐 이듬해 5월 20일 압록강을 건너 귀환하였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³⁰⁾

27) 鄭運經, 『耽羅聞見錄』 癸卯季四月初八日, 朝天館居民李己得, 發船至中洋, 遙見西海, 浪花接天, 昏昏沈沈. 有一道烟霧氣, 蜂擁而來. 人皆知其爲風. 相議回船之際, 風勢已迫. 而波濤接天. 舵折檣摧, 爲風所驅. 出東洋, 行七日, 遙見天際, 有雲一點. 人爭言海島之上, 雲必浮焉. 彼非島而何? 翌日見之, 淡雲一屯, 如蹲狗, 而左右細縷亘海, 人甚怪之. 夕時漸近, 則雲聚一高山, 而東西一帶平地. 乃是如縷者也. 夜半抵岸, 下船尋泉, 見麥苗已黃. ……見其船, 制樣比汲水船差小. 內外着漆可鑑. 輕快滑澤, 出沒波間, 來往如飛. 自其島過一日海, 抵對馬島. 九月十三日, 發對馬, 中路遇風, 僅泊巨濟.(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41~243.)

28) 鄭運經, 『耽羅聞見錄』 甲辰二月十四日, 都近川居民李建春, 過楸子導遇西風, 漂流東洋. 凡九日抵對馬島西邊. 有倭百餘人來浦邊. 其中官倭指揮之, 以小船纜引我船, 循島隅而行. 行一日入浦口. 通事來問居住, 答曰: “羅州人也. 乘船過珍島, 以西風漂流耳.” 曰: “珍島南有楸子甫吉諸島, 何不依泊?” 答曰: “夜黑風緊, 不能制船, 到貴界耳.” 曰: “若.” 其島幅員大小, 比濟州不加大, 亂石錯峙, 地形崎嶇. 石間時見麥田而甚稀貴. 蓋石多土薄, 不堪田地. 我國釜山等地, 陂田中木麥花歷歷可卞. 海路遠近可知耳. 東南風發船, 一日泊東萊.(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41.)

29) 鄭運經, 『耽羅聞見錄』 丙午二月初九日, 北浦民金日南夫次雄, 以質販發船, 同行凡九人. 過楸子, 東北風大作, 樁檣俱折. 船已出珍島西洋. 翌日海霧罩罩如織. 咫尺難卞. 惟隨風去, 至望日, 見漢拏微微在東北方. 翌日不可見. 其後三十餘日, 四望無一點島嶼. 惟泛泛大洋中. 不知以某風, 流在河樣海, 但占日出入, 辨東西而已. 其間巨浪掀搏, 惡魚出沒. 船之危急者數矣. 三月望間, 極南見一島, 飄飄波間, 船亦向之. 行一二日, 風又轉, 失島之所在. 如此數一, 值北風. 五日緊吹, 船直向其島. 漸漸近之, 而凡舵檣之屬, 或折傷, 不堪用. ……過蘇州常州, 至南京, 渡長江. 從石頭城下, 乘船候風而渡. 江之廣, 幾二千里. 自楊州過山東. 二月初九日, 至北京, 朝鮮通事來曰: “爾等持戶籍戶牌及爾國錢乎?” 對曰: “漂流時皆棄之洋中耳.” 曰: “此於大國爲禁法. 爾等之棄之善矣.” 適值我國冬至使行次, 隨還本國. 四月二十八日, 還渡濟州. 凡離家三閱歲矣.(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44~248.)

30) 鄭運經, 『耽羅聞見錄』 己酉八月十八日, 新邨人尹道成, 以商販發船向陸, 同船凡三十人. 莖過火脫一島名, 日勢已暮. 東北風和雨大作, 夜黑如漆, 不辨方所而往. 翌朝回顧, 則楸子珍島, 已在東矣. 午間有一島, 隱隱當前, 艱辛回舵, 昏後抵島. 而不知船泊處, 下碇海中, 眺望則水邊漁火數三, 把羅列, 遙呼救人, 而竟無答之者. 已而碇索不勝風力中斷, 船又向西. 人皆大恐. 翌朝見東南, 有島雲霧之中, 似是漢拏, 而風逆不得向島. 翌日風勢尤惡, 樁竿及舵尾皆折. 惟隨風飄蕩, 晝夜在洋中. 五六日甘水已盡, 煮海水, 取其凝露, 僅僅沃喉而已. 九月初八日, 有大舶二隻. 張帆掠我船而過. 我人等齊呼救命, 而略不省答. 見其服色, 則唐船也. 初十日有鳥色青狀如鵲, 坐船樑, 移時飛去. 夕時西方微有山形. 翌日其山宛然當船. 風勢又順, 惟向山而行. 十二日丑時, 量船已抵岸. 而波濤洶湧, 且無船梯, 人皆躍下沙渚. 時月已平西, 曉潮方生, 未知高阜可以避潮處. 羣行數里, 忽見橘皮一個, 落在沙中. 皆以爲此必人所行住處, 遂環坐待曉. 平明東見十里許, 帆檣簇立. 西則葭葦, 一望無際. 於是相議曰: “此處必異域也. 而有帆檣處, 不可往也. 行船之人, 人心例多難測. 若疑我輩之挾寶貨, 則見害易矣. 莫如向西, 覓邨家耳.” 於是行蘆葦中, 數里得一細路, 沿路而行, 朝晡時見

1729년(영조 5) 9월 그믐날 도근천에 사는 주민 고완(高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에 부딪혀 배가 가라앉으면서 표류하여 10월 초3일에 일본 오도(五島)에 표착하였다가 장기도와 대마도를 거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 표류기는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었다.³¹⁾

1770년(영조 46) 12월 25일 장한철(張漢喆)과 김서일(金瑞一) 등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다가 노어도 근해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유구제도의 호산도(虎山島)에 표착하였다. 왜구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안남 상선에 구조되었으나 장한철 등이 제주 사람임을 알고 지난날 안남태자가 제주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작은 배로 옮겨 뒀으나 다시 청산도에에 표착하였다가 서울에 도착하여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에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장한철은 이 표류사실을 『표해록』으로 남기고 있다.³²⁾ 장한철의 『표해록』은 『청구야담』의 「부남성장생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³³⁾과 『동야회집』의 「표만리십인전환(漂萬里十人全還)」³⁴⁾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1771년(영조 47) 11월 23일 장사하러 본토로 가려고 33명이 한 배를 탔다가 역풍을 만나

一人坐車上，駕以犀牛，牛大兼常牛三倍。角長四五尺，而色如漆。車中以布傘蔽陽，我人等皆當車拜伏，而言語不通。惟指口扣腹，爲求食之狀。其人自腰間，解布袋出銅錢，人給十數箇。因舉手南指，我人等乃南向而行。不十里有邨家。於是入邨中，一邨男女，聚觀喧譁。而聲音啁晰，莫解一語也。尹道成以木梢畫地書字曰：“是何邦何地？”有一人就而觀之。亦畫地曰：“大清國臺灣府連界彰化縣大突頭社番通事館也。爾等是何國人物，緣何到此？”尹道成又書答曰：“我等乃朝鮮國人。因公事渡海，遭惡風漂到，而飢餒已甚。願以粥飲相分。”其人曰：“此非餽待之所，他處自有救爾之人矣。”俄有一人携手往一處，有家舍如公廨，鋪席坐之。各啜粥少許。……在館所時，隔壁乃暹羅國使臣所住處。持一鳥而來，頭如鷄冠，其冠赤，脩項長脛，身大如豬。毛羽斑斕可愛。食以生肉。及進貢日，人以錦巾，拭其毛而去塵。而但不知其名，可恨。自北京至蘇杭州，漕河多填淤。發軍開濬，束蘆築堤。一役所必有數萬人。如此者，處處有之。五月二十日，還渡鴨綠江。(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35~237.)

31) 鄭運經, 『耽羅聞見錄』 乙酉九月晦日, 都近川居民高完, 發船之中洋, 忽有鯨負舟. 舟內欹側甚危. 已而舵端觸其身, 魚遂驚以其尾擊浪, 潛身而去. 波濤洄渦, 四面崩頽, 船暫旋, 小言而止. 人皆憂懼. 須臾西北風大起, 驅船漂東洋, 十月初三日夜半, 抵日本肥前州所屬五島.……蓋倭歷與我國有差也. 此島左右, 有小島某布. 通名五島者甚多. 以水路三日, 抵姜崎. 力對馬還本國. 大抵日本濱海地, 皆水泡石, 黑墳壤. 樸木長青, 大類濟州.(정운경, 정민 옮김, 위의 책, 249.)

32) 장한철, 정병욱 역, 1979, 『표해록』, 범우사, 1~128.; 장한철, 김지홍 옮김, 2009, 『표해록』, 지식을 만드는 사람, 1~284.

33) 金敬鎭, 「赴南省張生漂大洋」, 『靑邱野談』卷之五 濟州人張漢哲以鄉貢, 赴禮部會闈, 與友人金生及舟者二十四人登船, 風順海濶, 其疾如飛. 忽看西天, 赤日乍透, 一抹烟雲之氣, 起自波間, 雲影日彩, 明滅相盪, 俄而雲成五彩, 半浮半空, 雲下若有物突兀, 而高起依稀, 若層樓高閣, 而遠不可辨矣, 良久日隱重雲, 樓閣之形, 變成萬堞, 層城極目, 橫亘於銀波之上, 逾時而廊開無所睹, 此乃蜃樓也. 篙師驚曰: “是爲風雨之微 慎勿放心也.”……翌日舟子告順風, 可以利涉, 張生乃登舟趨程, 二日到康津, 轉入都下, 戰藝南省, 飲墨後還鄉, 以時年仲冬乘船, 於翌年五月始還, 漂流得還者七人, 四人已死, 一人病臥云. 伊後幾年張生登科, 至高城郡守云.(金敬鎭, 金東旭·鄭明基 共譯, 1996, 「赴南省張生漂大洋」, 『靑邱野談』上, 敎文社, 421~443.)

34) 李源明, 「漂萬里十人全還」, 『東野彙集』卷七 張漢哲濟州人也. 以鄉貢, 赴南宮會闈, 與友人金生及梢工商人等二十四人登船, 順風, 其行如飛. 忽看西天, 一抹烟氣起自波間, 雲影日光, 明滅相盪, 俄而雲成五彩, 平浮半空, 雲下若有物突兀, 而高起依稀, 若層樓畫閣, 而遠不可辨, 良久日隱霞映, 樓閣之形, 變成萬雉城堞, 橫亘於銀波之上, 逾時而廊開, 此乃蜃樓也. 篙師驚曰: “是爲風雨之微. 慎勿放心也.”……翌日舟子告以順風, 可以利涉, 張生乃登舟趨程, 二日到康津, 轉入京中, 戰藝墨, 而歸挈. 妻趙女作妾, 後幾年登科, 至高城郡守.(東國大學校 漢文學研究所 編, 1991, 『韓國文獻說話全集』4, 太學社, 398~414.

유구국 이강도(伊江島)에 표착하였다가 중국 황성을 거쳐 귀환하였다. 이 표류사실은 동지사 겸 사은사 서경보(徐鼎輔)의 서장관으로 다녀온 김정선(金景善)의 사행기록인 『연원직지』 중의 『유관록』에 수록되었다.³⁵⁾

1796년(정조 20) 9월 21일 이방익(李邦翼)은 서울에 있는 아버지를 뵈 양으로 배를 탔다가 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10월 6일 팽호도(澎湖島)에 표착하였다가 이듬해 6월에 귀환한다. 이 표류사실은 박지원의 『연암집』³⁶⁾, 유득공의 『고운당필기』³⁷⁾ 등에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방익 자신이 직접 지은 것으로 보이는 가사 작품인 <표해가>도 전해진다.³⁸⁾

1818년(순조 18) 4월 10일 최두찬(崔斗燦) 등 50명은 제주 별도포를 출발하였다가 대풍을 만나 16일 만에 중국 정해현(定海縣)에 표착하였다가 중국의 여러 관리와 문사들과 필담하거나 수창하며 6개월 동안 지내다가 귀환한다. 최두찬은 『강해승사록』을 남기고 있다.³⁹⁾

1828년(순조 28) 9월 7일 김광현(金光顯) 7명은 추자도로 고기를 잡으러 발선했다가 큰

35) 金景善, 「留官錄 上, 濟州漂人問答記」, 『燕輶直指』卷之三 夜, 招漂人於炕前問: “爾等自本州, 何年何月日, 以何事, 將向何地發船, 幾日遇何風, 又幾日泊於琉球國何地方, 留此幾月發行, 又幾月到北京, 所過山川風俗, 能有領畧者乎?” 漂人答曰, 去年辛卯十一月二十三日戌時量, 以商賈次, 將向內地, 三十三人, 同載一船, 候風而發. 其翌日午時, 逆風忽起, 海波掀蕩, 船去如飛, 隨波出沒, 諸人皆暈倒失色, 不分東西, 任其所之. 但時時有大島小嶼, 隱見於風波盪漚之外, 或有林木之蒼蔚者, 或有石壁之巉巖者, 雖欲攀登, 舟不可泊, 及夫精神愈迷, 兼以不炊者數日, 人皆昏絕. 自此以後, 都不省何如. 忽一日畧有精神, 開眼視之, 則所處非船而屋, 所見都是生面, 而猶不能出語問之. 又過幾日, 漸次收拾精神, 起坐相視, 則只有二十六人, 僅保一縷, 又有二人, 在傍救護. 故問: “此是何國何地耶?” 其人答: “本係琉球國伊江島.”……凡陸行六千三百餘里, 十二月二十三日, 始到皇城云. 蓋其所經, 路由閩·廣·吳·楚, 則信矣, 而海外漂民之附行外藩使行者, 未必許其極意縱觀. 且其所言, 多與史牒所記差爽, 必是得於傳聞者多, 而未免浮夸而然耳. 曾聞南中諸島間, 多故漂到他國, 供給之厚云. 今見此人, 形貌言辭, 狡猾瀾利, 全無誠樸之意, 安知不亦故漂者流歟. (김경선, 1989, 「연원직지 3, 유관록 상, 제주표인문답기」, 『국역연행록선집』(영인) 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11~115.)

36) 朴趾源, 「別集, 書李邦翼事」, 『燕巖集』卷六 上之二十年, 九月二十一日, 濟州人前忠壯將李邦翼, 將觀其父於京師, 舟遇大風, 至十月初六日, 泊於澎湖. 官給衣食, 留十餘日, 護送至臺灣抵廈門. 歷福建, 浙江·江南·山東諸省, 達於北京, 由遼陽, 明年丁巳閏六月還國, 水陸萬有餘里,……臺灣至廈門, 水路十日. 廈門至福建省城一千六百里, 福州至燕京, 六千八百里. 燕京至我境義州, 二千七十里. 義州至王京, 一千三十里. 王京至康津, 九百里. 耽羅北抵康津南距臺灣, 水路不論, 合一萬二千四百里.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옮김, 2007, 『연암집』하, 돌베개, 385~394.)

37) 柳得恭, 1986, 「恩暉堂筆記 卷之六, 李邦翼漂海日記」, 『古芸堂筆記』卷六(影印), 亞細亞文化社, 197~199.

濟州人, 前忠壯將李邦翼, 爲觀其父於京師, 丙辰九月二十日, 與五人同舟渡海, 遇西北風大作漂去. 四日望見大島, 意謂日本境, 待泊之際, 又爲東北風所, 驅向西南方, 十月初六日, 泊於中國福建省之澎湖界, 官司問情, 轉送臺灣府, 又送廈門, 至福建省城, 歷浙江·江南·山東界, 至北京, 丁巳閏六月初四日, 渡島滌江. 二十日, 入京, 師與父相見.……李邦翼父, 前五衛將光彬, 曾赴武科, 渡海漂, 至日本長崎島. 自是番舶所湊處, 市里繁華. 有醫士, 延光彬, 至其家, 歡待勸留. 光彬堅請歸國, 醫士引入內堂, 出妖嬌小我, 使拜. 光彬曰: “吾家累千金, 無一箇男. 只有此女. 煩君爲吾女婿, 吾老且死, 千金之財君所有也.” 睇其女齒白如霜, 未鹽鐵汁果是室女也. 光彬大言曰: “棄其父母之邦, 耽慕財色, 投屬異國, 犬彘之不若也. 且吾歸國登科, 富貴可得, 何必君之財與君之女哉.” 醫士知其無可奈何, 而送之. 鄭檢書樞與光彬親熟說此事, 光彬雖是島中武弁, 毅然有守, 可尚也. 彼長崎醫士, 亦知兩國和好已久, 約條甚嚴, 而敢誘上國之人, 極爲妖惡.

38) 李邦翼, 1914, 「표해가」, 『青春』第1號, 新文館, 144~152. ; 李邦翼, 1982, 「표해가」 『校合 歌集』二(影印), 太學社, 298~321. ; 李邦翼, 1982, 「표해가」, 『校合 樂府』上(影印), 太學社, 224~232. ; 李邦翼, 1982, 「표해가」, 『校合 雅樂部歌集』(影印), 太學社, 87~102.

39) 최두찬, 박동욱 역, 2011, 『승사록, 조선 선비의 강남 표류기』, 휴머니스트, 1~542.

바람을 만나 9일 동안 표류하다 중국 보타산(普陀山)에 표착하고, 이듬해 정월 7일에 황성에 도착하였다가 귀환한다. 이 표류사실은 박사호(朴思浩)의 『심전고』에 「탐라표해록」으로 전해진다.⁴⁰⁾

3. 해양 인식의 층위

제주의 선조들은 바다에서 중요한 볼거리를 찾기도 했으니 영주십경(瀛洲十景) 중 성산일출(城山日出)·사봉낙조(沙峰落照)·산포조어(山浦釣魚)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제주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고 있는데, 이는 곧 바다가 제주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과의 왕래를 위해서는 제주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모험과 고난의 바다이기도 했다.

제주 바다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달라지면서 바다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배를 운용하는 방식이나 해상 무역 환경 등은 바다에 대한 인식을 크게 지배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돛과 노에만 의지해 제주 바다를 넘나드는 일은 목숨까지 담보하는 중대사였기에 풍랑이라는 악재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 관련 표해록에 나타난 바다는 바로 모험과 고난의 현장이었기에 이에 대한 인식의 양상을 일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지만 바다의 크기에 대한 생각, 제주 바다의 풍랑에 대한 생각, 제주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해양지리에 대한 생각, 용신에 대한 생각, 고래에 대한 생각, 바다에서의 금기에 대한 생각 등에서 그 인식의 양상을 살펴 보려고 한다.

40) 朴思浩, 1989, 「心田稿, 留館雜錄, 耽羅漂海錄」, 『燕行錄選集』 耽羅人出身金光顯等七人, 戊子九月初七日, 捉魚次, 乘船向楸子島. 初十日, 遇大風簸揚出沒於海濤中, 備嘗危苦凡九日. 始泊南海普陀山, 留定海縣八日, 復乘船. 歷鎮海·寧波·慈谿·餘姚·上虞·山陰·蕭山, 到錢塘, 留四十七日. 復乘船, 歷石門·嘉興·吳江·吳縣·無錫·常州·丹陽·丹徒·楊州·高郵·寶應·淮安·清江, 十二月十六日下陸, 凡水路二千九百七十里. 十七日, 復陸行, 歷山東·桃源·洪花·蘭山·李家庄·板城·蒙陰·新泰·泰安·齊河·禹城·平原·德州·景州·交河·河間·新雄·涿州·良縣. 正月初七日, 到皇城, 凡陸路二千里. 漂人之言曰, “九日海中, 出沒風濤, 不知其幾千里, 而長鯨巨魚, 幾不免吞舟之患者屢矣. 水陸行合五千里之間, 山川樓臺, 人物謠俗, 無文可記, 是所欠也, 第撮其大者而言之. 普陀山, 海中名山, 寺刹精麗, 花卉繁華, 可謂仙境, 而錢塘形勝, 天下所無, 今見北京, 大不如錢塘矣. 湖水如鏡, 二十四橋, 各設虹霓, 錦帆畫舫, 出入於其中. 彩閣丹樓, 一層二層三層四層, 至于五層, 聯絡湖上. 冬暖如春, 花樹交映, 居人皆飯稻羹魚, 錦衣珠珮. 聞東國漂人, 皆競引還家, 各設酒饌, 慰問勞苦, 贍行頗厚, 或醉於笙歌之樓, 或遊於珠璣之市, 如是者四十七日, 而烟柳畫橋, 風簾翠幕, 不知其幾萬家. 其衣食之足, 風俗之厚, 景物之美, 天下之樂地云.” 余於旅燈之下, 問其所經歷, 掇其言, 作漂海錄.(박사호, 1989, 「심전고2, 유관잡록, 탐라표해록」, 『국역연행록선집』(영인)I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62~63.)

1) 바다의 크기에 대한 인식

다음은 장한철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바다의 크기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구의 남쪽과 북쪽 끝을 ‘주애천허’로 보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 끝을 ‘석목유사’로 보아 지구를 평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명을 받들고 서역에 나갔던 길에 뗏목을 타고 황하의 근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다가 은하수에 거슬러 올라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고 지기석(支機石)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고사를 인용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바다란 것은 그 크기가 길이 없을 정도여서 하늘과 땅을 삼키듯 싸고 안고, 해와 달을 거꾸로 세우며 주애천허(朱崖天墟: 중국의 남쪽 끝에 있는 해남도의 동반부의 이름)로써 남북의 애안(崖岸)으로 삼고, 석목(析木: 석목은 성차(星次)의 이름. 여기서는 동쪽을 의미함)·유사(流沙: 중국의 서쪽에 있는 큰 사막. 곧 고비사막)로써 동서의 주저(洲渚)로 삼고 있다. 나로 하여금 만약 장건(張騫)의 뗏목만 얻게 한다면, 그것으로 가히 강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은하(銀河)에 도달할 수 있겠고, 만약 산옹(山翁)의 잎을 얻어 탄다면 가히 만 리를 눈 깜짝할 새 달려 고향에 닿을 수 있겠으나 어찌 그런 이치가 있으리요. 어찌 그런 술책이 있으리요. 오직 꿈쩍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⁴¹⁾

2) 제주 바다의 풍랑에 대한 인식

지금도 제주에서는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룻날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 다음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문안을 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부터 시작하여 제주 곳곳을 돌며 봉숭화꽃·동백꽃 구경을 하고, 세경 너른 땅에는 열두 시만국 씨를 뿌려 주고, 갯가 연변에는 우뭇가사리·소라·전복·미역 등을 많이 자라게 씨를 뿌린 후 2월 15일경 우도를 거쳐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부르며 영등굿을 벌여 영등할망을 대접하는데, 초하룻날은 영등할망을 맞는 영등환영제를 하며 12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영등할망을 보내는 영등송별제를 연다. 이처럼 옛 제주 사람들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정월이 지나 2월에는 비록 바람이 잦아들어도 영등달이므로 바다를 건너는 것을 삼갔다. 장마가 지나고 음력 5월에 배를 빨리 달리게 하는 부드럽고 맑은 바람인 박초풍(舶艖風)이 불 때라야 비로소 바다를 건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월은 매서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큰 물결이 진동하는 풍랑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

무릇 매년 정월은 바로 한창 추울 때로서 매서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큰 물결이 진동하여 부딪치게 되니, 배를 타는 사람들이 꺼리는 때입니다. 2월에 가서야 점차로 바람이 잦아들지만, 제주 풍속은 오히려 연등절(燃燈節)이라 하여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또 강남의 조주(潮州) 사람들도 정월에

41) 장한철, 정병옥 옮김, 1993, 『표해록』, 범우사, 38. (張漢喆, 『漂海錄』 「十二月二十六日」 海之爲物, 其鉅無外, 吞包天地, 轉倒日月, 以朱崖天墟, 爲南北之涯岸, 析木流沙, 爲東西之洲渚. 使我而若得張騫之槎, 則可以泝河源而達天漢, 若泛山翁之葉, 則可以瞬萬里, 而到家山矣. 豈有是理? 豈有是術? 惟當束手待死而已.)

는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4월에 이르러 매우(梅雨)가 지나가고 난 뒤 시원한 청풍(淸風)이 불면 바다를 다니는 큰 배들이 돌아오니, 이를 ‘박초풍(舶趙風)’이라 부릅니다.⁴²⁾

제주 바다가 파도가 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산천과 연결된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가 제주 바다 밑에 형성되어 있어 수세의 충격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공이 나에게 묻기를, “탐라의 바다는 바람만 불면 물결이 날뛰며 배도 간혹 가라앉으니 이는 파도가 몹시 험악한 때문이지요. 이제 한라산 이남을 지나가니 바람은 비록 맹렬하니 물결이 험악하지 않으며, 물결은 비록 높으나 배가 위태롭지 않으니 이는 무슨 이치입니까?”한다. 나는 이에, “천하의 지형을 말하자면, 중국은 평원과 광야(曠野)가 많고, 그 변두리는 높은 산과 큰 못이 많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산천은 흐르고 솟음이 몹시 급하고, 5리에 산이 하나, 10리에 강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지맥(地脈)은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 조선의 땅을 형성했는데, 조선의 여맥(餘脈)이 남으로 내려와 소안(所安)·추자(楸子)·탐라(耽羅) 등이 되고, 동남의한 갈래가 대마(對馬)·살마(薩摩)·대판(大阪) 등 일본 땅이 되었다. 동래(東萊)로부터 일본에, 그리고 해남(海南)으로부터 탐라(耽羅)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비록 수천 리나 되는 큰 바다로 막혀 있지만 바다 밑은 천봉만학(千峯萬壑)이지. 이는 조선과 아주 밀접한 산천이다. 그러므로 바다 위에 풍파가 일어나면 배타기가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은 수세(水勢)의 충격으로 바다 밑에 있는 봉우리와 골짜기에 진동되어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저 한라산 이남인즉 바다 밑이 평평하게 넓어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의해서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 없지. 그러므로 수세(水勢)가 그리 위험하지 않지.”⁴³⁾

3) 제주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예로부터 제주에는 돌·바람·여자가 많은 삼다의 섬으로 일컬어져왔다. 이 가운데서도 여자가 많은 섬이라는 이유는 제주의 남자들이 바다에서 조난을 많이 당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성종의 찬진명령으로 귀환하자마자 상복을 입은 채로 청과역(靑坡驛)에 머물면서 찬술한 최부의 『표해록』에서 언급하는 다음의 대목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제주 바다에서 표류하였다가 살아온 사람은 백 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태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먼 곳으로 표류하면 돌아오기가 힘들었고, 이들보다 비교적 가까운 중국에 표류하더라도 왜적으로 무고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왜적으로 무고함을 당하는 일은 최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기에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42) 崔溥, 朴元燾 譯, 2006, 『漂海錄 譯註』, 고려대학교 출판부, 65~66.(崔溥, 『漂海錄』卷之一 「十六日」大抵每歲正月, 正當隆寒之極, 颶風怒號, 巨濤震激, 乘船者所忌. 至二月漸得風和, 濟州俗猶號爲燃燈節, 禁不渡海. 且江南潮人, 亦不於正月浮海. 至四月梅雨既過, 颶然淸風, 海舶初回, 謂之舶趙風.)

43) 장한철, 정병옥 옮김, 앞의 책, 54~55.(張漢喆, 『漂海錄』「十二月三十日」沙工問余曰: “耽羅之海, 則風起浪湧, 舟或淪溺者, 以其波濤之極險也. 今行過漢拏, 以南, 則風雖猛, 而浪不險, 浪雖高, 而舟不危者, 是何理也?” 余曰: “天下之地形, 中土則多平原曠野, 四裔則多高山大澤, 而其中我國, 山川流時促急, 五里一山, 十里一水. 地脈, 來自白頭山, 而關爲朝鮮之地, 朝鮮之餘脈南下, 而爲所安·楸子·耽羅等諸島, 東南一派, 爲對馬·薩摩·大阪等, 日本之地. 自東萊而距日本, 自海南而距耽羅, 其間雖隔之以數千里大海, 海底之千峰萬壑. 自是朝鮮促密之山川, 故海上風波, 極其危險者, 以其水勢之衝擊, 震博於海底之峰壑也, 若夫漢拏以南, 則海底平行, 無高山深壑之激波揚濤. 故水勢不甚危險也.”)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공무로든 사무로든 제주도에 왕래하다가 바람을 만나서 행방불명된 자가 일일이 셀 수도 없지만 마침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열 명, 백 명 가운데 겨우 1-2명에 불과 합니다, 이들이 어찌 모두 바다에 빠진 것이겠습니까? 그중에 표류해서 도이(島夷)들이 사는 섬라(暹羅), 점성(占城)국과 같은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도 없었고, 혹시 표류해서 중국 땅에 이르게 된 사람도 국경시대 사람들이 잘못 왜적으로 무고하고 목을 베어 상을 받는다고 해도 누가 그 실정을 가려낼 수 있었습니까?⁴⁴⁾

4) 해양지리에 대한 인식

다음은 최부 일행이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여 6일째 되는 날 동남쪽을 향하여 밤새도록 배가 나아갈 때 최부가 사공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설명이 현시점에서도 해양 지리적으로 다름이 없다. 이 중에서도 외국 여러 나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끄는데, 명주는 지금의 영파부로서 양자강 이남에 있다거나 서남쪽에 태국과 베트남과 말레이 반도 서남쪽의 말라카가 위치하고, 정남쪽에 오키나와가 있으며, 정동쪽에 대마도가 있다 함으로써 최부의 해양지리적 식견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정동쪽으로 가면 여인국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옛날 선박이 표류하여 여인국에 도착하면 많은 여인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갔으나 모두 죽는다는 여자들만이 산다는 곳이다.

신은 권산·고면·이복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키를 잡아 배를 바로잡고 있으니 방향을 몰라서는 안 된다. 내가 일찍이 지도를 훑어보니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동북쪽으로 향해 가면 곧 우리 충청도와 황해도의 경계이며, 정북방은 곧 평안도와 중국의 요동(遼東) 등지요, 서북방은 곧 <우공(禹貢)>에 나오는 청주(靑州)와 연주(兗州) 지역이며, 정서방은 서주(徐州)와 양주(揚州) 지역이다. 송(宋)나라 때 고려와 교통할 적에 명주(明州)에서 바다를 건너왔으니, 명주는 곧 대강(大江) 이남의 땅이며, 그 서남방은 곧 옛날의 민(閩) 지방으로서 지금의 복건로(福建路)요, 서남방을 향하여 조금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면 곧 섬라(暹羅)·점성(占城)·만랄가(滿刺加) 등의 나라요, 정남방은 곧 대유구국(大流球國), 소유구국(小流球國)이요, 정남방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곧 여인국(女人國)과 일기도(日岐島)요, 정동방은 곧 일본국과 대마주(對馬州)다. 지금 배가 풍랑에 표류된 지 닷새 동안 밤낮으로 서쪽을 향하여 갔는데, 거의 중국 땅에 닿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행하게도 또 이 서북풍을 만나서 동남방으로 거슬러 가게 되니, 만약 유구국과 여인국에 이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천해(天海) 밖으로 흘러 나가서, 위로 은하수에 닿게 되어 가이없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할 것인가? 너희들은 내 말을 기억하고서 키를 바로잡고 가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⁴⁵⁾

44) 崔溥, 朴元燾 譯, 앞의 책, 83.(崔溥, 『漂海錄』卷之一 「十九日」我國人爲公爲私往來濟州, 或遭風無去處者, 不可枚悉, 終能生還者, 十百僅一二. 是豈盡沈於海波乎? 其漂人島夷若暹羅·占城之國者, 無復望還, 雖或漂至中國之界, 亦爲邊人所誤, 誣以倭賊, 折馘受賞, 則誰能辨其情乎?)

45) 崔溥, 朴元燾 譯, 2006, 위의 책, 45~46.(崔溥, 『漂海錄』卷之一 「初八日」漂大洋中, 是日陰, 過午, 西北風又作, 舟復退流, 向東南徹夜而行. 臣謂權山·高面·以福等曰: “汝等執舵正船, 向方不可不知. 我嘗閱地圖, 自我國黑山島, 向東北行, 卽我忠清·黃海道界也, 正北卽平安·遼東等處也, 西北卽古禹貢靑州·兗州之境也, 正西卽徐州·揚州之域. 宋

앞서 최부의 이러한 인식은 장한철의 『표해록』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단지 다른 점은 여인국에 대한 이야기 대신 벽랑국과 거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진술되고 있다. 벽랑국은 이미 <삼성신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바 문헌에 따라 일본국과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장한철은 벽랑국은 일본의 동쪽에 있다고 함으로써 이들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인도는 곧 전설상의 거인국으로서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의하면, 발해(渤海)의 동쪽에 대여(岱輿)·원교(圓嶠)·방호(方壺)·영주(瀛洲)·봉래(蓬萊)의 다섯 선산(仙山)이 있었는데, 용백국(龍伯國)의 거인이 와서 이 산들을 떠받치고 있던 자라 가운데 여섯 마리를 낚시로 낚아 가버리자 대여와 원교 두 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 용백국이다. 즉 전설상의 벽랑국이나 거인국에 대해서도 장한철은 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남쪽 바다에 깔려 있는 여러 나라의 지도에 대해서 쓴 많은 책을 열심히 훑어본 적이 있다. 무릇 탐라의 한라산은 큰 바다 가운데 있어서 오직 북으로 조선과 통할 뿐인데, 그 수로(水路)는 980리 남짓하다. 동·서·남의 삼면은 바다가 있을 뿐 땅이 없는데, 넓고 또 넓어 끝이 없다. 일본의 대마도는 한라산의 동북에 있고, 일기도(一歧島)는 정동(正東)에 있으며, 여인국(女人國)은 동남에 있다. 한라산의 정남(正南)에는 곧 크고 작은 유구의 섬들이 있으며 서남에는 안남(安南)·섬라(暹羅)·점성(占城)·만랄가(滿刺加) 등의 나라가 있다. 정서(正西)는 곧 옛날의 민중(閩中), 지금의 복건로(福建路)다. 복건의 북은 서주(徐州)·양주(楊州)의 지역이다. 옛날 송(宋)이 고려와 교통할 때에는 명주(明州)에서 배를 떠나 바다를 건넌다. 명주는 양자강의 남쪽에 있는 지방이다. 청주(靑州)·연주(兗州)는 한라산의 서북에 있는데, 이상 여러 나라는 모두 탐라와는 바다로 막혀서 몹시 먼데 그 거리가 몇 천만 리가 되는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은 동해에 있는 벽랑국(碧浪國)으로서 일본의 동쪽에 있다. 거인도(巨人島)는 일기도의 동남에 있는데, 인적이 두절되고 백성들에게는 정교(政敎)가 미치지 못해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판판인 곳이다.⁴⁶⁾

5) 용신에 대한 인식

다음에 인용된 지문은 장한철 일행이 호산도에 표착하여 설날 그믐날 비가 오는 날 아침에

時, 交通高麗, 自明州浮海, 明州即大江以南之地也, 西南即古閩地, 今之福建路也, 向西南, 稍南而西, 即暹羅·占城·滿刺加等國也, 正南即大小琉球國也, 正南而東, 即女人國也, 一歧島也, 正東即日本國也, 對馬州也. 今漂風五晝夜, 西向而來, 意謂幾至中國之地. 平幸又遭此西北風, 逆向東南, 若不至琉球國·女人國, 則必流出天海之外, 上達雲漢, 無有涯涘, 云如之何? 汝等其記我言, 正舵而去.”)

46) 장한철, 정병옥 옮김, 앞의 책, 36~37. (張漢喆, 『漂海錄』 「十二月二十六日」 余嘗博攷群書, 著南海諸國圖矣. 盖耽羅漢拏山, 在大海中, 惟北通朝鮮, 而水路爲九百八十餘里. 東西南三面, 則有海無地, 浩茫無邊. 日本之對馬島, 在漢拏之東北, 一歧島在正東, 女人國在東南. 漢拏之正南, 即大小琉球也, 西南即安南·暹羅·占城·滿刺加等國也. 正西即古閩中, 今之福建路也. 福建之北, 即徐·楊州之域也. 昔宋之交通高麗也, 自明州發船浮海. 明州即大江以南之地也. 靑州·兗州, 在漢拏之西北, 以上諸國, 皆與耽羅, 隔解絕遠, 不知其相距, 爲幾千萬里. 而其最遠者, 東海之碧浪國, 在日本之東. 巨人島在一歧之東南, 人跡不通, 政敎不及, 自是隔世之別界也.)

보았던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비바람의 천둥을 용신(龍神)이 승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일행이 바윗머리에 엎드리고 용왕님께 살려달라고 축원하고 있다.

천둥소리와 번개가 검은 구름 가운데서 우르르하고 번쩍번쩍 빛난다. 고래·자라·거북 등이 물결 사이로 뛰어오르며, 달려가 부딪치기도 한다. 참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장관(壯觀)이다. 모두들, “이것은 곧 용(龍)이 하늘에 오르는 것입니다. 풍우(風雨)의 천둥은 모두 그 신의 변화입니다.”라고 한다. 이윽고 검은 구름이 하늘과 바다 사이를 떠받치며 찢르고 하다가, 크게 한 번 굼틀하더니 바다 위에서 뿌리를 끊고 거뒤틀려 돌돌 뭉치며 높은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 뇌성은 점점 멀어지면서 서북쪽 하늘에서 울려오고 있다. 얼마 뒤 구름이 걷히고 비가 개니 바다와 하늘은 열리듯 밝아진다. 바로 그때에 양윤하가 나와 땅에 엎드려서는 용을 향해 축원한다. “용왕님, 이제 승천하셨으니 삼가 용왕님 앞에 비나이다. 특별히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내리셔서 우리들 목숨을 살려주소서.” 또한 그는 막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손을 저어 부르고는 목소리를 같이하여 축원케 하려 한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바윗머리에 엎드리고서는 윤하가 한 대로 빈다.⁴⁷⁾

다음에 인용된 지문은 최두찬이 표류하면서 글을 지어 해왕과 선왕께 고하는 대목으로 지극히 신령한 신이므로 표류하는 최부 일행을 육지로 인도하는 도움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바다에서의 해왕이나 선왕은 뱃길을 인도할 수 있는 수호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또 글을 지어서 해왕(海王)과 선왕(船王)의 신(神)에 고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하늘이 쓰기를 용(龍)으로써 하였으나 그 이로움이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었고, 현원씨(軒轅氏)가 그 배를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뱃사람들은 그 숫자가 50명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게 되어 뒤집혀서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배는 어찌 도움이 없으며, 바다는 어찌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지극하게 신령한 자는 신이니 자기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남모르는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큰 육지로 인도해주소서.”라고 하였다.⁴⁸⁾

6) 고래에 대한 인식

다음은 장한철 일행이 추자도를 한참 지나서 고래를 목격하고 보여주는 행동들이다. 고래

47) 장한철, 정병옥 옮김, 위의 책, 52~53. (張漢喆, 『漂海錄』 「十二月三十日」 雷聲電影, 轟燁于黑雲之中. 鯨鯢鼉鼉之族, 踴躍奔突於波間. 誠人世間, 所未見之壯觀也. 衆皆曰: “此乃龍升天也, 風雲雷霆, 皆其神變化也.” 良久, 黑雲撐插, 天海之間, 而動搖扶輿, 斷根於海上, 收斂融結, 升向層空. 雷聲漸遠, 響自西北之天矣. 而雲收雨霽, 水天開朗矣. 方其社也, 梁允夏出而伏地, 向龍而祝曰: “龍王之行今升天, 伏乞仰奏香案之前. 特垂好生之德, 以爲拯活我衆命之地也.” 又目幕中諸人, 揮手招招, 欲使齊聲虔祝, 諸人皆出, 伏岩頭祝之, 如允夏之爲矣.)

48) 최두찬, 박동욱 옮김, 앞의 책, 87. (崔斗燦, 『乘槎錄』 「四月十八日」 又爲文, 告于海王船王之神, 其文曰: “天用以龍, 利在澤物. 軒造其舟, 民不病涉. 今我舟人, 厥數半百. 漂蕩中洋, 幾於覆沒. 船何無助, 海何不恤. 至靈者神, 各有職責. 亟賜陰鷲, 導我大陸.”

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주도 근해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돛배를 타고가는 옛 사람들에게는 고래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듯하다. 고래가 뱃가를 지나가는 모습에 뱃사람들이 흠뻑에 되어 뱃바닥에 엎드리어 관음보살을 암송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 즉 당대의 고래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저, 저, 저 동쪽 물결 속에 말입쥌. 무엇이 우뚝 솟아 떠 있는덱쇼. 그, 그게 무얼갑쇼.”하고 일러준다. 그 말에 따라 가만히 내다보니 과연 무슨 동물인지, 머리와 꼬리는 물속에 처박은 채 등마루만 반쯤 내어놓고 물위에 떠 있는데, 길이가 족히 서른 발은 넘어 보인다. 사공이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보더니 뱃사람들로 하여금 떠들지 못하게 하고는, “저게 바로 고래구나. 고래, 큰 놈은 배를 삼키고, 작다 해도 능히 배를 뒤엎을 텐데……. 저놈하고 부딪히는 날이면 불장 다 보겠네. 다 봐. 아이구, 이를 어찌노.”하며 안절부절못하여 말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데, 그 큰 고래는 아랑곳없다는 듯이 몸을 뒤척이니 물결이 치솟으며 내뿜는 물은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한번 훌쩍 몸을 날리더니 서쪽을 향해 뱃가를 스치듯 지나가니 물결은 덩달아 길길이 일어나고, 돛대는 꼭 자빠지는 것 같다. 뱃사람들은 모두들 흠뻑이 되어 뱃바닥에 꿇어 엎드리고서는 관음보살만 부지런히 외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윽고 고래는 멀리 사라져버린다. 물결은 다시 잠들듯 고요해지고 배도 더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다. 나는 뱃사람들을 돌아보고, “숨소리를 죽여서 그 고래가 배 있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옳지, 관음보살이란 염불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내는고. 고래가 도를 닦는 중도 아닌데, 어찌 관음보살을 존중할 줄 알까보냐. 설사 관음보살의 혼령이 남아 있다손 치더라도 어찌 능히 그 고래를 막아내고 이 배를 옹호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도대체 관음보살에게 무얼 축원했다는 거냐?”⁴⁹⁾

7) 바다에서의 금기에 대한 인식

옛날의 뱃길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힘든 노정이었기에 지금보다 더욱 매사를 조심하고 신중하여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순항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행은 ‘부정탄다’는 관습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금기시됨이 자연스러운 민속신앙처럼 자리잡았다. 다음은 장한철 일행이 12월 25일 제주를 출발하고 얼마 없어 화탈도를 지나면서 표류하기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로 과거를 보기 위해 승선했던 27세의 장한철은 자연스럽게 화탈도의 위치가 궁금했을 것으로 보인다. 손으로 화탈도를 가리키면서 제주까지의 거리와 육지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는데, 뱃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사항으로 사공들에게 외면당하는 행위였다.

49) 장한철, 정병옥 옮김, 앞의 책, 22.(張漢喆, 『漂海錄』 「十二月二十五日」 “彼東之波間, 隆然以浮者. 是何物也?” 余見之, 果有物, 沒其頭, 尾半露, 腴背而浮者, 長可三十餘丈. 沙口忽揮手目之, 使舟人不得譁語曰: “彼乃鯨也. 大可吞舟, 小能覆船. 若與彼物相值, 則難活, 奈何奈何?” 言未已, 長鯨, 翻身起浪, 噴沫作雨. 踊躍向西, 掠過舟邊, 層浪自關, 危檣欲倒. 舟人皆失色, 俯伏於船中, 欲其不相見, 猶誦觀音菩薩之聲, 不絕于口. 頃之鯨去已遠, 波靜舟平. 余責舟人曰: “屏息聲氣, 使彼物不知有舟船, 則可也, 而觀音之聲, 何爲而發也, 彼物非修道之僧, 豈知尊觀音之佛. 觀音之殘魂餘靈, 亦豈能轢羈彼物, 擁護此船耶? 你於觀音, 抑何所祝?”

멀리 점점이 보이는 섬들, 어떻게 보면 붓끝 같고, 다시 보면 아물거리는 돛대처럼 보이는 것이 화탈섬(火脫島)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손으로 그 섬들을 가리키면서, “저 화탈섬엔 사람들이 사나, 살지 않나? 제주에서 여기까진 몇 리나 되나? 그리고 화탈섬에서 육지까진 또 몇 리나 되나?”하고 몇 가지 물어보았으나, 사공은 나만 쳐다볼 뿐 대답이 없다. 그 태도를 보아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모양이지만 말하지 않은 것 같다. 마침 고득성이가 내 옆에 있다가 몰래 나에게 말하기를, “배에서는 본래 손을 들어 섬을 가리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상에선 갈 길이 머냐, 가까우냐고 묻지 않는 게 낫습죠. 보통 그것을 꺼리니까요, 해해.”⁵⁰⁾

4.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 관련 표해록에 나타난 해양 인식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주 바다에서 표류한 기록은 최부나 장한철이나 최두찬의 <표해록>처럼 개별 작품은 물론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사서,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이나 이익태의 『지영록』 등 여러 개별 작품집 등에서도 폭넓게 전해지고 있다. 표류 시기도 고려시대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표류 지역도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대만·오끼나와·베트남·캄보디아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제주 관련 표류 사실을 검토하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에서 이른 시기부터 본토와 왕래하면서 제주 바다가 표류의 현장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다에 대한 인식은 바다의 크기, 제주 바다에서의 풍랑, 제주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 해양지리, 용신, 고래, 바다에서의 금기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바다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바다란 그 크기가 겉을 없을 정도로 지구의 남쪽과 북쪽 끝을 ‘주애천허’로 보고 있고, 동쪽과 서쪽 끝을 ‘석목유사’로 보고 있다. 또한 한 무제 때 장건이 사명을 받들고 서역에 나갔던 길에 뗏목을 타고 황하의 근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다가 은하수에 거슬러 올라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고 지기석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지구를 평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 바다의 풍랑에 대한 인식은 정월에는 풍랑이 심하여 영등달이 지나고 장마가 끝난 후 음력 5월에 박초풍이 불 때라야 비로소 바다를 건너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주 바다가 파도가 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산천과 연결된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가 제주 바다 밑에 형성되어 있어 수세의 충격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표류하였다가 살아온 사람은 백 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먼 곳으로 표류

50) 장한철, 정병옥 옮김, 위의 책, 19~20. (張漢喆, 『漂海錄』 「十二月二十五日」 而數點遠嶼之或如筆端, 或如遠帆者, 乃大小火脫之島也. 余以手指點曰: “彼火脫島有居民, 否? 自濟州距此, 爲幾里? 自火脫距北陸, 又幾里也?” 沙工目余而不答. 如有所欲言而不發. 高得成在傍, 密謂余曰: “舟中本不舉手指點. 海上之不問前路遠近者, 俗忌. 卽然不可不知也已.”)

하면 돌아오기가 힘들었고, 이들보다 비교적 가까운 중국에 표류하더라도 왜적으로 무고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해양지리에 대한 인식은 영과부는 양자강 이남에 있고, 서남쪽에 태국과 베트남과 말레이 반도 서남쪽의 말라카가 위치하고, 정남쪽에 유구국이 있고, 정동쪽에 대마도가 있고, 정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정동쪽으로 가면 여인국이 있고, 벽랑국은 일본의 동쪽에 있고, 거인도는 일기도의 동남에 있다고 인식하여 실제와 전설상의 기술을 혼동하고 있다. 용신에 대한 인식은 비바람의 천둥을 용신이 승천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해왕이나 선왕은 뱃길을 인도할 수 있는 수호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래에 대한 인식은 고래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당대의 고래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바다에서의 금기에 대한 인식은 손으로 섬을 가리키면서 제주나 육지와와의 거리를 묻는 것을 금기시함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바다에서의 항해를 내심 두려워하는 심리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高柄翊, 1988,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 고창석·김상옥 역, 2012, 『濟州啓錄』, 제주발전연구원.
- 金敬鎭 編著, 金東旭·鄭明基 共譯, 1996, 『靑邱野談』上, 敎文社.
- 金東旭·林基中 共編, 1982, 『校合 歌集』二(影印), 太學社.
- 金東旭·林基中 共編, 1982, 『校合 雅樂部歌集』(影印), 太學社.
- 金東旭·林基中 共編, 1982, 『校合 樂府』上(影印), 太學社.
- 김봉옥·김지홍 뒤집, 2001,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 金錫翼, 洪琦杓·白圭尙·金새미오·孫基範 譯註, 2015, 『耽羅紀年』, 濟州文化院.
- 東國大學校 漢文學研究所 編, 1991, 『韓國文獻說話全集』4, 太學社.
-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 編, 1965, 『譯註高麗史』, 東亞大學校出版社.
- 柳得恭, 1986, 『古芸堂筆記』卷六(影印), 亞細亞文化社.
- 李益泰, 金益洙 譯, 1997, 『知瀛錄』(影印), 濟州文化院.
-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고려사절요』,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연행록선집』,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朴趾源, 1989, 『燕巖集』(影印), 景仁文化社.
-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옮김, 2007, 『연암집』하, 돌베개.
- 소재영·김태준 편, 1985, 『旅行과 體驗의 文學 : 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소재영·김태준 편, 1985, 『旅行과 體驗의 文學 : 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소재영·김태준 편, 1987, 『旅行과 體驗의 文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尹致富, 1994,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 이혜순, 1996,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張 華, 林東錫 譯註, 2011, 『박물지』, 동서문화사.
- 장한철, 『漂海錄』(筆寫本)
- 장한철, 정병욱 옮김, 1993, 『표해록』, 범우사.
- 장한철, 김지홍 옮김, 2009, 『표해록』, 지식을 만드는 사람.
- 鄭東愈, 南晩星 譯, 1971, 『晝永編』(影印)(上), 乙酉文化社.
- 정운경, 정민 옮김, 2008, 『탐라문견록 :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 조규익·최영호 엮음, 1994,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 조용호·최재남 외, 2015, 『고전문학과 바다』, 민속원.
- 崔 溥, 『崔錦南漂海錄』(國史編纂委員會所藏本)
- 최 부, 윤치부 주해, 1998, 『註解 표해록』, 박이정.
- 崔 溥, 朴元焄 譯, 2006, 『漂海錄 譯註』, 고려대학교 출판부.
- 崔康賢, 1982,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崔斗燦, 『乘槎錄』(奎章閣本)

최두찬, 박동욱 역, 2011, 『승사록, 조선 선비의 강남 표류기』, 휴머니스트.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朝鮮王朝實錄』(한국고전종합DB)

■ abstract

Maritime Awareness in the Sea Drift Records Related to Jeju Island

Chi-Boo Yoon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for Korean Education Major
Teachers College
Jeju National University

Ancient records on wreckage that took place in the seas off the coast of Jeju (the largest island off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ound in many different publications. These books include individual essays (or *The Pyohaerok* in the collective term) by Choi Bu, Jang Han-cheol and Choi Du-chan, and history books such as *The Goryeosa* (also known as *The Annals of the Goryeo Dynasty*, a history book of Goryeo, a Korean medieval kingdom established in A.D. 918) and *The Joseon Wangjo Sillok* (also known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r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 history book of Joseon, a Korean dynastic kingdom established in A.D. 1392), as well as collections of journals, including *The Tamna Mungyeonnok* by Jeong Un-gyeong (a travel journal from the Joseon era) and *The Jiyeongnok* by Yi Ik-tae (an official journal by Yi Ik-tae, former Jeju Governor from the Joseon era). Unlike the sporadic comments on wreckage-related events in the Goryeo era, descriptions on similar occasions were more frequently recorded in the document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spatial background ranged from China and Japan to farther places such as Taiwan, Okinawa, Vietnam, and Cambodia.

Reviewing the above-mentioned historic cases will lead to the understanding that people had inevitably recognized the seas of Jeju for their significance as sites where wreckage occurred since ancient times. Evidently, wreckage wa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d sea travel between Jeju (with its distinctive feature of geographic isolation) and the mainland.

To comprehend how people viewed the sea in the ancient times, this paper explores their viewpoints from seven different perspectives: the conceptual size of the sea; the winds and waves of Jeju's seas; the people that went adrift in the seas of Jeju; maritime knowledge in ancient times; belief in Yongshin (an imaginary sea creature resembling a dragon that was traditionally worshiped as a god); ideas about whales; and taboos related to sailing.

Some of the records connoted the immeasurable size of the sea in general, describing its vertical length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s *Juae Cheonheo* and the horizontal one from the east to the west as *Seongmok Yusa*. On the other hand, another record mentioned Zhang Jian's Journey from the Han dynasty of China, which assumed flatness of the earth. The folktale describes Zhang's journey in which he allegedly traveled to some of the countries located far west of China by the order of Emperor Wu of

Han. According to the story, he sailed a raft for a seemingly endless voyage to the uppermost stream of the Yellow River (or Huang He). Finally reaching the Milky Way, he met Gyeonu (Niu Lang in Chinese) and Jingnyeo (Zhi Nu in Chinese). Gyeonu and Jingnyeo are the couple from the Northeast Asian folktale titled The Cowherd and the Weaver Girl. Zhang Jian's Journey says that he returned with Jigiseok (Zhi Ji Shi in Chinese, referring to the stone known to be used by Zhi Nu to fix her loom) from the Milky Way.

When it comes to the winds and waves of Jeju's seas, the lunar equivalent to January brought heavy winds and high waves as recorded in the afore-mentioned books from the Goryeo and Joseon eras. It was suggested that the lunar equivalent to May, with its cool breeze called Bakchopung, was the best time for sailing because it had no strong winds, unlike those that blew in the lunar equivalent to February by the power of Yeongdeung (the shamanistic goddess of wind), nor the subsequent period of Jangma (the seasonal torrential rain).

It was also stated that the winds and waves were extreme in the seas near Jeju due to the energy of the water, resulting from the local submarine topography of Jeju.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records, Jeju's waters contained peaks and valleys that stemmed from mountain ranges and rivers on Korea's mainland.

Looking with a focus on people, only one or two out of 100 people survived from maritime accidents that took place near Jeju. One of the reasons lies in the improbability of return trips from far regions such as Thailand and Vietnam. Another reason is that even if one went adrift near China (relatively close to the Korean Peninsula), he or she would end up being executed for the false accusation that branded seafarers as raiders.

Exploration into the ancient maritime knowledge found that China's Ningbo was recognized as a region located south of the Yangtze River, while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river was considered home to Thailand, Vietnam, and Malacca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Malay Peninsula). The descriptions continued to describe the Ryukyu Kingdom as the nation due south of the said river, while Tsushima an island due east. Traveling further toward the due south and then to the due east, one would reach Yeoguk (or Yeonguk, referring to the nation consisting solely of women). The country called Byeongnangguk was located east of Japan, whereas Geoindo (the island of giants) was southeast of Ilgido (the ancient Korean term for Ikishima, or the ancient Japanese state of Ikikoku). As illustrated in these examples, those that wrote the legendary narratives lacke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whereabouts and the surrounding lands.

It can be inferred by reading the tales of Yongshin that rainstorms were believed to symbolize the dragon-shaped god ascending to heaven while Haewang (the shamanistic god of the sea) and Seonwang (the shamanistic god of the ship) were considered divine patrons that guided the sea routes.

Comments on whales imply that the sea creature was perceived to arouse fear, well-presenting the customary recognition of whales at the time.

Sea-related taboos included a ban on pointing a finger to an island to ask how far it was from Jeju or Korea's mainland. This taboo connoted people's hidden fear of sailing in the sea.